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1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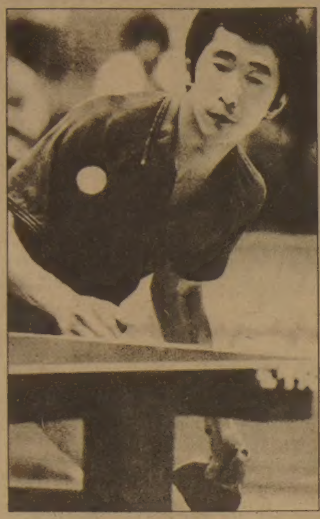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844 1982년 6월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une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준우승을 한 박이희선수



◆승자 오노선수의 폼.

박이희선수 준우승

오노에 3－0분패, 상금 $4천5백

한국탁구의 호프 박이희는 준준결승에서 스웨덴의 벵손, 준결승에서 미국의 보간을 2:0, 3:0으로 각각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으나 전세계선수권자 일본의 세이찌·오노에게 3－0으로 분패, 준우승에 머물렀다.

6일 하오3시30분 에토비콕올림피엄스타디엄에서 열린 노위치유니온 세계탁구대회결승에서 수비형의 박이희는 재빠른 스매싱으로 계속 공격하는 오노에게 21:17, 21:19, 21:17로 연패했다. 박은 준우승상금 4,500달러를, 오노는 1위상금 9천달러를 받았다.

박선수는 지난 4일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도 오노에게 21:14, 21:17로 분패했었다.

게임후 박은 "지난 겨울내내 부상으로 누웠었던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오노에게 패해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격형 오노는 이날 결승에서도 박에게 여유를 주지않고 계속 대쉬, 수비의 균형을 깨뜨렸다.

일본탁구의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오노의 코치 산베이·히구치는 "박선수같은 수비형의 선수를 이기는 길은 계속 스매쉬로 공격하는 것뿐이다. 게임전 오노에게 전투정신, 긴장을 풀것, 계속 공격할 것의 3가지를 주의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결승전은 스코아처럼 오노의 일방적게임은 아니었다. 박은 제1,2세트에서 큰 포인트차로 뒤진뒤에도 마지막까지 따라붙었으나 끝마무리를 못해 주저앉고 말았다.

이날 결승에는 대회최고로 교민 100여명을 비롯, 천여명의 관중들이 모였다.

3,4위 결정전에서는 스웨덴의 에펠그렌이 미국의 보간을 물리치고 3위를 차지했다.

〈사 고〉

「제5의 사나이」

오늘부터 연재

독자 여러분의 시각을 매일 즐겁게 해드릴 새 본격추리소설 김성종 작 「제5의 사나이」가 오늘부터 연재됩니다.

"남성미 넘치는 건장한 필치로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엮어내는 추리소설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김씨는 본보 〈캐너더뉴스〉 시절, 79년1월부터 1년간 "추정"이란 필명으로 인기추리소설 「제5열」을 연재, 독자들을 열광시킨 낯익은 작가입니다.

치정과 공포의 추리소설 「제5의 사나이」에 친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3면에 게재)

중동에 전면전 기운

이스라엘군 2만명 레바논 진격
150명 사망, 주영국대사 피습에 보복

(외신종합)공군과 해군의 엄호를 받는 이스라엘 육군 약 2만명이 수백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3일째 레바논 깊숙이 진격, 주영 이스라엘대사 피습사건으로 시작된 새 불씨는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경계선을 넘은 이스라엘군은 갈릴리지방에서 북부 이스라엘정착민들에게 포격을 퍼붓는 팔레스타인 포진지를 파괴하기위해 시리아국경부근 지중해 연안 53km 지점까지 전격 진입했다. 이스라엘측은 이번 작전에서 아랍인 150명이 피살됐다고 밝혔으나 레바논측은 사망자가 30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기습은 지난 3일밤 런던에서 슐로모·아고브 주영 이스라엘 대사가 아랍인 괴한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진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이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날 레바논 남서부 유엔군 관할지역인 티레지방에서 리타니강을 건너 습격해온 이스라엘군과 육박전등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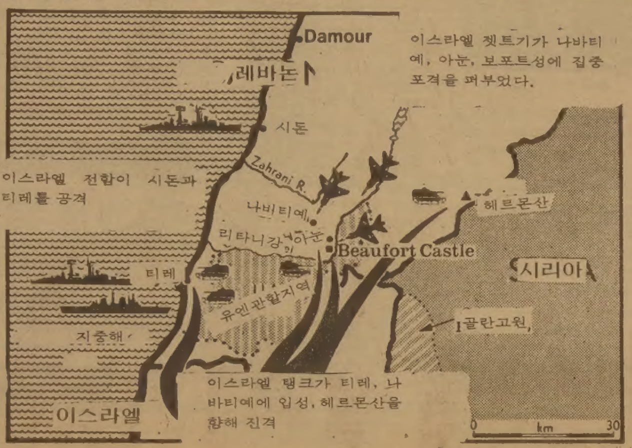
베르사이유에서 열린 세계 7대 경제정상회담에 참가중인 로날드·레이건 미 대통령은 모나켐·베긴 이스라엘수상에게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내고 전쟁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립·하비브 특사를 파견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이날밤 이스라엘군의 무조건 철수를 요청했다.

한편 하페즈·아사드 시리아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레바논을 보호하기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음을 아라파트 PLO지도자와 사르키스 레바논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했다.

트루도수상은 다른 6개국 세계정상들과 공동으로 휴전 호소문을 발표했다.

유엔대변인은 노르웨이 평화유지군1명이 사망하고, 레바논 정부는 아랍국 비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미국의 적극개입을 호소했다.



검찰총장, 사채사건 청문회서
정치자금화·입김 부인

(서울5일=연합)김석휘검찰총장은 이철희·장영자부부의 사채 스캔들 수사에 강력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4일 부인했다.

한국역사상 최악의 금융부정스캔들에 관한 공개청문회에서 김총장은 "이·장부부의 자산중 일부가 정계로 들어갔으며 정치적 압력때문에 사건 수사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문은 근거없다"고 밝혔다.

KBS, MBC등 2개방송이 협찬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20명의 시민이 8명의 사건 담당검사에게 질문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미국 고금리정책 불변

서방7국 회담서 캐나다노력 실패

(파리)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모임인 7개국 정상회담은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대한 대책은 마련못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의견차이만 문서화한채 2일간의 회의를 끝냈다.

미국의 레건대통령은 서방국들에게 소련에 주는 차관등을 줄이라고 요구했으나 다른 서방국들은 이에 불응했다. 캐나다등 서방6개국은 미국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강력한 압력을 가했으나 아무런 보장도 얻지 못했다.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루도수상은 미국이 6주안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을 위해 메케른재무장관, 맥기건외무장관등이 동행했다. 트루도수상은 "캐나다가 당장 어떤 경제대책을 세워야할지 모르겠다"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캐나다등 서방국들은 자체 화폐의 가치보호를 위해 역시 고금리 정책을 유지, 융자금이 많은 기업들에게 큰 압박을 주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줄여 일반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독의 슈미트수상,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과 트루도수상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긴축금융정책이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미국측 대변인은 이를 부인했다.

7개국 정상회담은 캐나다, 미국, 서독,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일본등의 세계 7개 경제대국 수뇌들의 연례모임이다. 81년에는 오타와에서 열렸다.

이들은 공산권에 대한 대책등을 강구하나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근래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서로의 이견만 노출시켜 왔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한국교통사고 12% 증가

하루 15명사망·291명 부상

(서울7일=연합)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5명이 숨지고 291명이 부상했음이 7일 교통부 보고에서 밝혀졌다.

금년도 첫 3개월간 교통사고로 1,401명이 사망하고 24,889명이 부상했다.

해상·육상및 공중사고까지 다 계산한 이 보고서는 금년 첫 3개월간 총사고 건수는 28,55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늘었다고 밝혔다.

공군참모총장에 김상태대장

(서울5일=연합)한국정부는 5일 이희근 공군참모총장을 예편시키고 김상태 공군중장(52)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된 김참모총장은 경상북도 청도출신으로 53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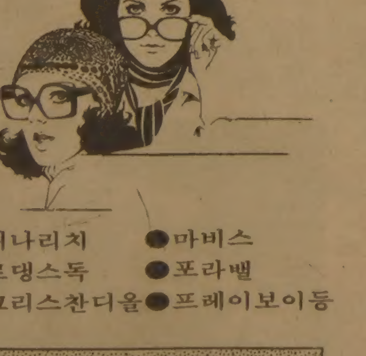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주식, Bonds, RRSP에 대한 문의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RRSP를 왜 남에게 관리시키는가?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 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유지관리비로 1년에 $100만내면 된다. 자기가 관리하면 투자결정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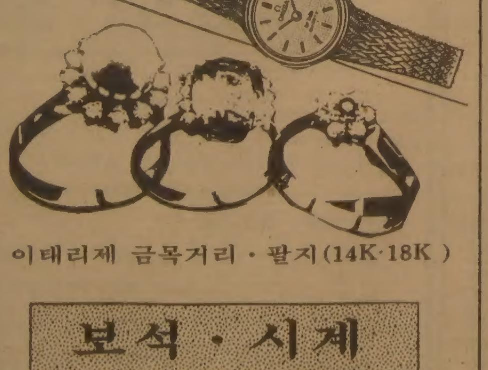
특별보너스 20%
노출의계절 !
내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려면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피부미용 ●화장법 ●화장품
선택요령에 대한 상담은 항상 친절히 응해드립니다.
화장품

30% OFF



●니나리치 ●마비스
●로댕스독 ●포라벨
●크리스찬디올 ●프레이보이등
선글라스

30% ~50% OFF
Ω OMEGA



이태리제 금목거리·팔지(14K·18K)
보석·시계

어름철 특별할인 다량입하
건강한 생활 !
교포및 여행자를 위한 녹용및 보약재 직수입
●십전대보탕 ●녹용
●웅담(캐나다산)진품
●우황청심환 ●신경통약
●사향·해구신 ●각종종합비타민등
한약부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해외여행 준비자 급증

1만여명, $4천여만 예치

(서울5일=연합)7월부터 시행될 해외여행자유화에 대비, 많은 한국민들이 은행에 예치금을 적립시키고 있다.

5일 한국외환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해외여행예치금제가 신설된 이후 금년 5월말까지 13,309명이 총 320억원(미화 $4천350만)을 예치했다.

크레딧 카드 사용 시작

(서울7일=연합)조흥, 제일, 상업, 한일, 서울신탁은행등 한국의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크레딧·카드가 7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크레딧·카드 소지자는 매월 10만원(미화 $140)까지의 물품을 무이자로 살 수 있다. 카드분실경우 백만원(미화 $1,400)까지 보상받도록 보험에 카버된다.

5개 시중은행은 금년말까지 20만명의 크레딧·카드 사용자및 15,000 상점을 유치할 예정이다.

청와대실장 함병춘

(서울7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6일 대통령비서실장에 함병춘 전 주미대사를 임명했다.

함실장은 1932년 서울출생, 59년 미국하바드대학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70년부터 73년 대통령정무담당보좌관, 73년부터 77년까지 주미대사, 79년부터 80년까지 대통령 외무담당보좌관을 역임했다.

이범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외무장관으로, 노신영 전 외무장관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임명됐었다.

◆한인합창단의 기아민을 위한 자선공연 광경. 전면의 바이올리니스트는 협연자 김선명씨.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굶주린자 위해 $7백모아

한인합창단 제2회 자선공연

토론토한인합창단은 5일 연합교회에서 있은 세계기아민들을 위한 자선음악회에서 7백달러를 모았다.

세계선명회를 통해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보낼 이 돈은 이날 임마뉴엘연합교회 여신도회가 기부한 $50을 포함, 헌금 1천여달러중 경비를 제외한 전액이다.

박재훈지휘·고희경반주로 성가, 한국민요등 13곡을 선보인 한인합창단의 솜씨는 특히 소프라노 이주연씨와 함께 부른 프랭크 작곡의 "오 거룩하신 주여"와 시편 150편 연주에서 두드러졌다.

송영철씨의 바이올린 독주, 마스네곡 타이스의 명상, 석경재·이혜련·여정애씨의 여성 3중창 2곡, 소푸라노 이주연씨의 독창 "들으라 오 이스라엘"(멘델스존)과 박순혜,김선영,브넨다·매킨니씨의 피아노 3중주, 박재훈곡 "이전보다 더 사랑하리"등으로 짜여진 연주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 150여교민이 모여 의미있는 저녁을 보냈다.

한편 토론토한인합창단은 제2회 메시야 공연을 위한 합창연습을 9월3일부터 시작하며 이에 대비,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연락처는:
Toronto Korean-Canadian Choir
25 Parkway Forest Dr.,#1613
497-0406이다.

社說

허술한 나사

모국 2대 흑사건의 교훈

최근 연발한 모국의 먹빛사건이 국내외에 큰 충격파를 주었다.

그 하나는 경남 의령경찰서 우범곤순경이 62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37명에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고, 다른하나는 장영자·이철희부부의 사채스캔들.

우리는 수년전,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북괴군 병사에 의한 미군장교 "도끼살인사건"을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분노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도아닌 경관이 평화로운 농촌서 100명의 인명을 해친 사건은 어안이 벙벙하다.

우순경의 경우, 직업상의 불만, 사회부조리에 대한 성격파탄과 엽색행각,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데에 보태어 애정고백을 거절당한 분격이 그를 악마로 만든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더군다나 눈물겨운 것은 기둥같은 자식을 잃은 노부모와 부모를 빼앗긴 어린 고아들이다.

관계장관을 인책사퇴 시킨다고 사태가 회복되거나, 살상된 인명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답답하다.

소잃기 전 외양간을 고쳐두는 사전준비와 철저한 관기(官紀)확립이 필수조건 이었다.

우순경이 부락을 누비며 총격을 자행한 여러시간, 그것을 막아낼 병력의 출동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안녕질서 유지면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 대공전선이 아닌 후방에 이번 사건같이 치안질서에 구멍이 뚫려서야 어찌 국민의 마음이 편안한가?

세기적 사채사건의 장본인 이철희씨는 중앙정보부 차장에 국회의원을 지낸 지도급 인사, 장여인은 현직 대통령의 처삼촌을 형부로 둔 신분이었다. 그들은 이같은 관계를 악용, 돈과 「신분」이라면 쩔쩔매는 관계·경제계 고위층을 이용하여 6천여억원의 사기행각을 자행했다. 그들의 간이 몹시 컸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조국의 고위계층이 「썩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후유증으로 내각이 우수수, 장관 11명이 갈렸다.

이번 조처중 "가려운 부위는 내두고 변두리만 긁는"식의 인사처리가 이곳서도 여러 구설수를 빚고 있다.

의령사건의 책임을 물어 내무장관이 경질되었으면, 국가경제를 뒤흔든 대사건인데 어째서 경제부처장관들이 그대로 있는지?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앞서 「대소사건 때마다 장관경질」이 반드시 국가대사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11명의 장관을 바꿨으면서도 재무장관등 주무장관을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했다. 관계 공보관리들의 일이 바빠(?), 잊어버린것인지?

문제는 모든 행정이나 행위에 있어 원칙은 원칙대로, 법은 법대로 민주적으로 시행하는 지도급 신사들의 태도와 자세이다.

「특이한 신분자」나 일반서민을 똑같이 대하는 「정신개혁」이 아쉽다.

부동산매매시 법률적 제반문제

경제생활과 우리 ② III 법률상담편 ‖ 강찬영변호사 제공

◆강찬영 변호사

계약시 외상값 유무확인

변호사통해 법원에 등록

가) 가게매매

가게를 매매하는 일은 사업체의 매매이므로 주택매매에 쓰이는 계약서형식과 판이하게 다른 전량매매계약서(Agreement Under the Bulk Sales Act)라는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전량매매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매수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매매가 전량매매계약서아래 이루어졌을때 매도인은 법적으로 매수인에게 전량매매진술서(Affidavit Under the Bulk Sales Act)라는 서류를 매매완료일까지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은 이 진술서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지역 고등법원에 등록한다. 일단 등록후에는 매도인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대준 채권자나 매도인의 사업체를 보고 물건이나 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자들이 이 가게를 인수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만일 매수인이 인수하기 전에 매도인이 가게물건을 외상으로 사온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게를 인수했다면 진술서를 등록해도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갑사기」라는 사람이 「SHOP ALL VARIETY」라는 가게를 경영,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쵸코렛을 「SWEETY WHOLESALER」도매상에서 사오곤 했다.

마침 「갑무지」가 가게를 사기로 합의를 보아 4월30일자로 가게인수를 끝내기로 했다. 「갑사기」는 4월25일자로 도매상에서 3천달러에 상당하는 쵸코렛을 구입, 2주만에 돈을 지불키로 했다. 「갑사기」가 외상으로 쵸코렛을 구입한 사실을 모르는 「갑무지」는 4월29일밤 인벤토리(INVENTORY)를 통해 모든 가게의 물건을 현찰로 구입했고 그 이튿날인 30일부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잔액을 다 받은 「갑사기」는 5월1일자로 캘가리로 종적을 감추었다. 몇일후 「SWEETY WHOLESALER」도매상 직원으로부터 돈내라는 독촉장을 받· 「갑무지」는 아연할 수 밖에….

위의 경우 「갑무지」의 변호사가 전량매매진술서를 제대로 등록했다면 「갑무지」는 「갑사기」가 지고간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갑무지」가 외상값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없이 모든 잔액을 다 지불해 버렸다면 「갑무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가게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매수자는 자신이 또는 변호사를 통해 매도자 또는 사업체에 대해 등록이 된 채권자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 채권자 등록사실을 발견치 못한채 인수했다면 법적으로는 채권자 등록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 매수인이 빚을 떠맡게 된다. 매수인의 변호사는 조사를 통해 채권자를 찾아내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완수케한 후에나 잔액을 지불하도록 하는것이 일반적 조치이다.

가게매매중 매수인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이와같은 조사뿐 아니라 채권자가 발견됐을 때 필요한 조처를 취해주는 일이다. 반면에 채권자의 변호사는 손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제대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등록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채권에 대한 사실통보가 되었다고 법적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지적한 등록(REGISTRATION)은 P.P.S.A.(PERSONAL PROPERTIES SECURITY ACT) 사무실에 등록하는 것을 일컫는다. 온타리오주에는 단 한곳에만 PPSA사무실이 있다. 주소는 543 YONGE ST., TORONTO, ONTARIO. 전화문의는 허용이 안된다. 이곳을 통해 모든 조사및 등록을 하게되며 대부분 상점매매완결은 이곳에서 행해진다.

한국일보
533-2361

교민동정

◆장순채(코리아타운 번영회장)=오는 20일(일) 서니부룩 파크(에그린톤×레스리)에서 여름야유회를 갖는다.

가족동반해서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안응전(한맘노인회원)=노인회 여회원들과 함께 지난 78~80년, 3년간 한인성당 친교실에서 국수·장국밥 염가봉사로 얻어진 $1만2천566.29으로 새로 마련된 회관(439 Dundas St. E.) 소성당에 제대(제단)·장궤틀(의자) 20개·십자가의 길(14처)을 기증했다.

또한 할머니 신자들의 친목단체 "7월회"는 3천2백달러 상당의 성물들—성체함·제대용십자가와촛대·성작(컵)과 미사용 주병과 물병·성체촛불받침·제대포·장백의 두벌·영대 2개를 한인천주교회에 기증했다.

신자직업소개

한인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교회사목위원회(위원장 김문고)는 지난 25일 월례회에서 교회내 신자 서로간의 협조를 위해 직업소개 봉사업무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종업원을 구하는 업체나 직장을 구하는 신자는 본당사무실을 통하여 등록하면 한인가톨릭회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하여 상호연락이 되도록 한다고.

"조합원 모두들 위해야"

본국 신용조합간부들 내방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은 3일 하오4시 동조합사무실에서 고국서 온 한국신용조합 고위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토론토 조합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5월31일~6월4일 토론토 신용조합센터에서 열린 세계신용조합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총회에 아시아연합회 대표로 참석한 이상호(한국신용조합연합회장, 아시아연합회장), 강정렬(아시아연합회 사무총장)씨는 신용조합은 조합원 전체, 특히 어려운 처지의 조합원에게 혜택이 우선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신용조합은 60년 시작, 64년 연합회를 설립하고 72년에는 신용조합법을 제정, 현재 단위조합 1500개, 총자산 3,500억원($5억), 조합원 1백만명으로 급성장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한국의 신용조합은 조합원수, 자산규모면에서 미국, 캐나다,호주에 이어 세계4위이다. 미국은 조합원 4천7백만명, 단위조합 2만2천으로 단연 수위, 캐나다도 조합원이 전체인구의 1/3, 단위조합 1만2천개로 8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상호회장은 세계적으로 신용조합이 금융기관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원래 설립정신인 「상부상조」, 「유무상통」정신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용조합은 어느 특정고객 선호정책을 지양하고 조합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신용조합은 은행보다 대출금리는 높고 예금금리는 낮게 정부에서 책정하다. 이와 반대로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은 시중은행보다 대부, 예금금리가 각각 1%씩 낮고 높아 조합원에게 유리하다.

이회장은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 시중은행보다 나은 금리를 주면서 출자금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합리화, 이윤극대화도 중요하나 조합원의 최대의 이익으로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한인신용조합은 조합원 1,400명, 자산 250만달러이며 또 하나의 한인조합인 천주교신용조합은 조합원 680명, 자산 160만달러이다.

—제3회 스포츠·퀴즈—

프로야구 올스타전 장소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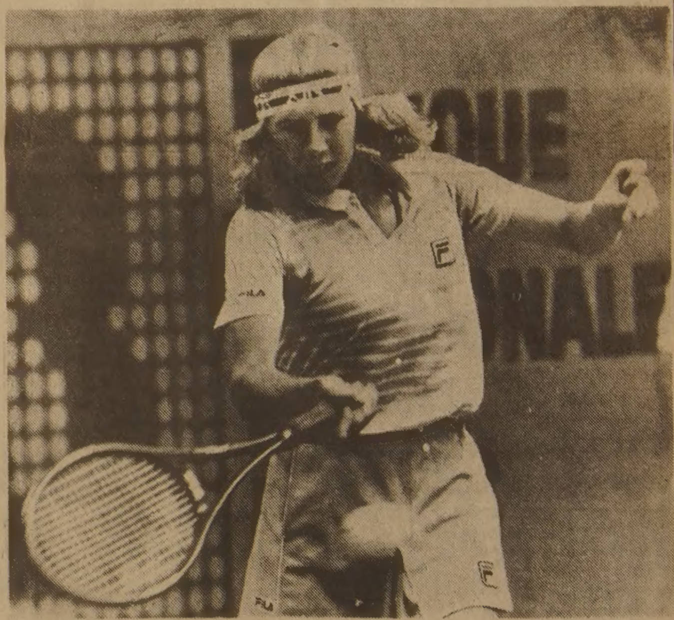
본사의 제3회 「스포츠·퀴즈」는 금년도 북미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벌어지는 장소 알아맞추기다.

해마다 7월에 개최되는 올스타전은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날리그별로 대표선수들을 선발, 단 한게임을 가진다.

양팀의 감독은 전년도 각 리그 우승팀인 아메리칸리그의 뉴욕·양키즈감독과 내셔날리그의 L.A.다저스의 감독이다.

82년도 올스타전이 열리는 도시의 이름을 알아 맞추는 분 2명을 추첨으로 선발, 1등 1명에게는 제일여행사 제공하는 올스타·게임입장권 2장을 주며, 2등 1명에게는 브랜든스포츠사(대표 이전영)가 제공하는 쿠퍼스야구글로브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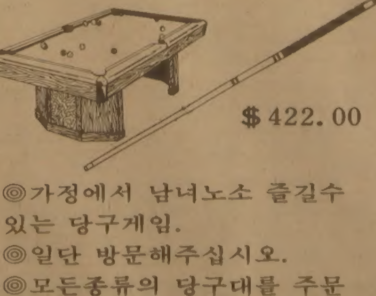
응모방법은 엽서우송(주소: 1025 Dupont St, Toronto, M6H 1Z7) 또는 전화(533-2361)이며 기간은 오는 16일(수)까지이다. 당첨자는 16일밤 8시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토론토·블리자드축구팀과의 경기에 참석하는 미국 포트랜드팀의 조영증선수가 현장에서 추첨한다. 조선수는 북미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유일한 한국계 선수이다.



◆에버트 누른 17세 예거—3일 프렌치오픈 테니스토너먼트 준결승전에서 17세의 안드레아·예거(사진)가 5연승챔피언을 노리는 테니스여왕 크리스·에버트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예거는 6-3, 6-1로 에버트를 압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파리-AP)

주간女性

BRUNSWICK
SINCE 1845
THE PERFECT GIFT
〈가족전체가 즐기는〉



$422.00
◎가정에서 남녀노소 즐길수 있는 당구게임.
◎일단 방문해주십시오.
◎모든종류의 당구대를 주문 할 수 있읍니다.
HOME BILLIARD SALES
SERVICE & REPAIRS
5170 DIXIE RD. MISSI.ONT.
(딕시×401 SOUTH) ☎ 625-2691

1982 JONG PARK INTER
태권도 참피온쉽
일 시 : 1982년 6월12일(토)
12시(예선)~오후 7시(결승)
장 소 : DON MILLS ARENA
(1030 DON MILLS RD.)
티 켓 : $3.00
판매처 : 다운타운 (☎ : 961-7100)
다운스비우 (☎ : 781-5527)
스카보로 (☎ : 265-0100)
렉스데일 (☎ : 743-2562)
미시사가 (☎ : 279-6492)
부람톤 (☎ : 453-7591)
오샤와 (☎ : 576-1571)
문의처 : Main Institute(719 Yonge St.)
☎ : 961-7100

주최 : 박종수태권도장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와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최훈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花의 사나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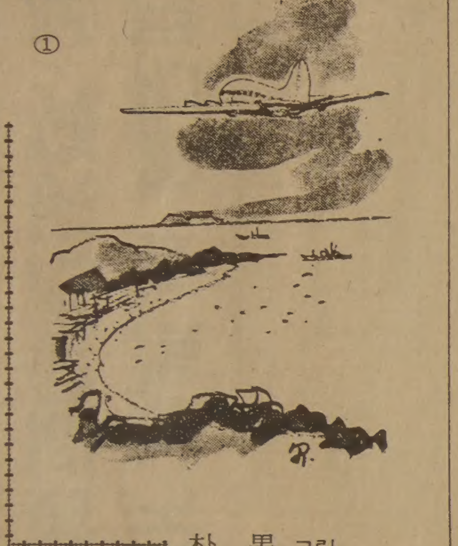
金聖鍾작

세상에는 미친년들도 많다.
한 예로 박문자(朴文子)의 경우가 그렇다.
그날 아침 남편이 한달예정으로 출국하자 그녀는 한잠 늘어지게 자고나서 이제부터 이자유로운 한달간을 어떻게 즐기면서 보낼까하고 생각하다가 부산에 살고 있는 절친한 친구인 김명자(金明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머, 그래? 야, 신나겠다 얘, 축하한다 얘.』
문자로부터 남편이 한달 예정으로 출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명자는 자기 일도 아닌데 덩달아 좋아라했다.
『그래서 말이야.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엔조이하면서 보낼까 하고 목하 고민중 이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일단 부산으로 내려와라 얘.』
『거기 가봐도 신통한거 없더라 얘.』
『바캉스시즌이니까 지금은 달라.』
『해운대에 사람 많니?』
『응, 굉장히 많아. 내려와라 얘.』
『아, 배고파. 아침밥도 안 먹었다 얘.』
그러면서 그녀는 벽시계를 힐끗 보았다. 정오가 가까와오고 있었다.
『여기 냉면 잘하는데 있어. 내려와서 먹어.』
『냉면이나 먹으러갈까?』
『그래. 내려와라 얘.』

어떤 情事 ①

朴文子는 女體의 굶주린 냄새 풍기며…

『해운대에 호텔이나 하나 잡아둬라 얘.』
『그래. 그런건 염려마.』
『방만 잡아두면 뭐하니. 든든한 수갈도 한마리 준비해놔야지. 요샌 아주 생각나서 미치겠어.』
그들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함께 다녔고, 결혼후에도 줄곧 관계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아무말이나 터놓고 할 수 있을만큼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한시간후 문자는 부산에 내려가 냉면을 먹기위해 집을 나섰다. 운전사가 후면 창가에 보아란 듯 크리넥스통이 놓여져 있는 정무색 로얄로 그녀를 공항까지 정중히 모셔다 주었다.
얼마 후 그녀를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녀는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좋은일이 있어야 할텐데. 그녀는 속으로 음탕하게 웃으면서 자리 안경을 이마 위로 밀어 올렸다.
그녀는 30대에 접어든 유복한 유부녀의 스타일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몸은 약간 살이 찐 편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늘씬한 키와 어울려 돋보임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미인이었다. 그러나 오래보면 싫증이 날인형같은 얼굴이었다. 엉덩이에 꼭끼는 감색바지에 빨간티셔츠를 받쳐입고있었다. 머리는 아프리카 흑인처럼 달달볶은 스타일이었다. 성형수술로 빚은 쌍꺼풀진 두눈을 가끔씩 치뜨는 버릇이 있었다. 빨갛게 매니큐어를 칠한 열개의 손가락…다이어먼드 반지…오메가시계…목걸이…귀걸이…향수 냄새…향수 냄새 뒤에 은밀히 감춰져있는 여체의 굶주린 신음소리….
남편 한기수(韓基洙)는 서른여덟이었고 그녀는 서른 셋이다. 남편은 약간 반면 수재형으로 좋은 엘리트코스만 밟아온 인물이었다. 그런인물이 으레 그런것처럼 그는 그나이에 경영학박사에다 국내굴지의 재벌회사인 R상사의 상무이사가 되어있었다. 한마디로 출세한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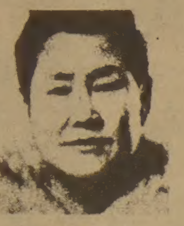

朴 男 그림

—독자의 광장안내—

토론토 한국일보는 독자의 성원을 거름삼아 자라는 독자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독자의 광장〉은 문자 그대로 독자들의 대화의 광장·의견의 광장·제언의 광장이 되기 위한 컬럼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2백자 원고지 3매이내로 주소·성명과 함께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치마바람

이상온 (토론토 가정주부)


◇ 이상온 여사

여자란 아내이자 어머니, 할머니로 끝을 맺게 된다. 그 과정에는 전성기라고 할 "어머니"란 세 글자가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다. 아내가 되어도 자식을 못낳으면 "어머니"란 자격이 없고, 한 주부로 마치는 것이다.

이번 사채비리

사건의 주인공인 장여인을 생각할 때, 그 옛날 에집트의 크레오파트라 여인을 연상하게 된다. 과연 잘난 여자인지? 미모에 큰 손을 가진 여자라니 이 모두가 여자이고 어머니란 이름을 가진 자로서 충격적이고 불미한 기사와 우순경의 사건 등에서 부터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고, 그리고 또 "강력한 나라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중책을 지닌 한 괄호 속에 이 마음 한 구석을 펼쳐본다

인생은 언제나 원가계산을 하며 살면 현명한 답이 나온다고 들었다.

내가 가장에게나,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가? 사는가? 살것인가? 자문자답 해보면 미궁에 빠지고 만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실수와 후회할 적이 많다. 권세만능시대라고 그들은 배후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다재다능하다고 평하면 올바른 대답이라고 할까?

점잖으신 가장님들이여! 제발 치마바람에 휩쓸렸을 때는 사물을 바르게, 큰 안목으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뇌물이란, 인격과 도덕을 좀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화위복"이라고, 한 어머니로서 바라는 것은 신뢰풍토를 정립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서 대망찬 우리 한민족을 위해 큰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몇자 적어 보았읍니다.

"제눈속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속 티는 보인다"고 성경에 있고, 또 하나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하였다.

토론토 한국일보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가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카인의 후손」 공연에 즈음하여

엄 혁

연극이란 참여(Participation)와 이해의 광장이며, 관객을 극 속에 참여시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누구를 이해한다거나 한 사건을 이해하는데는 연극 또한 바람직한 행위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연극을 통하여 지적인 교류와 정서적인 교류, 혹은 인간관계의 이해는 연극의 1차적인 목적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이곳의 특수한 환경속에서 문명의 이기를 즐기고, 즐길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미래의 꿈을 위한 정진에 온 정력을 기울이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한번쯤은 "이게 전부는 아닐텐데" "이게 인간관계의 모두는 아닐텐데"하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질적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늘 느끼는 (잠재적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갭(Gap), 혹은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문명과 인간관계의 이해정도, 혹은 현실과 이상간의 이율배반적인 관계, 이러한 관계들의 답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산다는게 무엇인가?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같은시대인이 공유하는 이상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관과 인간현실과의 마찰로 일어나는 갈등과 사건, 거기에 따르는 무서운 음모가 늘 딸려있다.

우리가 공연할려는 카인의 후손(Decendents of Cain)이 이러한 갈등과 음모를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어떤 것이며, 그들이 당연시하는 도덕관, 가치관, 황금만능주의등을 그려봤다.

온세계 현대 젊은이들의 공통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대병(Side Effect)을 연극의 인물인 테리(Terry) 지니(Jeany), 요하라는 젊은 세대에 의하여 펼쳐진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혹은 생각들,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언어와 음악과 미술의 종합예술인 연극으로 간접경험이 아닌 직접경험의차원으로 관객 끌여들여 그 답을 줄까하는 생각도 감히 해봤었다.

그래서 현대 사회 무수히 딸려있는 유혹의 돌부리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감히 해봤었다. 또 기성세대의 불륜과 무책임이 어떠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나 하는 인과응보(Retribution)적인 얘기도 감히 해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성공은 이곳에서 우리(모든 구름다리/viaduct 구성원들, 구름다리는 1980년도에 창간된 문학동인지로서 이곳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혹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임)들의 힘으로 창작된 창작극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대의 기술적인 것, 음악효과, 조명등이 「구름다리」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 그것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공연(한국어 3번, 영어 2번 공연 예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작은 성공이라고 우리는 지레 즐거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과 준비들의 결과가 연극이라는 상자의 뚜껑을 열기전까지는 미지수라는 것 또한 알고 있고, 연극의 중요요소중의 하나인 관객 또한 미지수라는 것 알고 있다.

여하튼 8월13,14,15일 3일간 5번 공연될 연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방식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또 예술적, 혹은 문학적인 성공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후원이 되주시고, 앞으로 적극 도와주실 한국일보사, K·U·S·A, K·I·V·F, 실험Society 문협(K·C·Pen Club)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이글은 문협회원이며, 구름다리 멤버인 엄혁씨가 자작극「카인의 후손」 공연을 앞두고, 교포들에게 보내는 연극안내 글이다.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초호화판 RYERSON극장 무대위에
펼쳐지는 5천년 한민족의 얼!

★2년의 노력끝에 보여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제전!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은 물론
이웃의 캐네디안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자!

●일 시: 1982년6월12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R erson Theater 43 Gerrard St. E
(Yonge & Gerrard)

★입장료: A석 $8.00 B석 $6.00

판 매 처: ⊙킹스카메라(534-1085) ⊙미도파백화점(536-1692)
⊙노년회(755-8079)
(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드림)
⊙각 식품점 ⊙각 음식점

출 연: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쏘냐,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경, 이숙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경, 김은진, 장쥬리아, 배소진, 김용순, 김순이

찬조출연: 백미애, 오재윤, 김정숙

도움주신분: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NORH YORK CHEV. 100불
최우덕 100불 곽정열 100불 김춘탁(킹스카메라) 100불 한용식 50불 강우석 100불
정태호 100불 손명수(손·BROS) 100불 장필규 100불 김만구(ECOSYS가구점) 100불
김현모(연합상사) 100불 이기훈(무나미 트로피) 100불 이창복(팬·아시아) 100불
서형석 50불 유재영 100불 Peel Club. $200 이병권(체육회장) $300
쌍방울메리야스 $50 미도파백화점 $100 제일여행사 $50 송창섭(ANCHOR AUTOBODY) 박인순(한인회장) $200 아세아한약방 $30 브랜돈스포츠(이건영) $100
김종조(종합보험) $50 조규혁종합보험 윤호영(SUN LIFE)
충오태권도학교 $100 강윤모 $50 무명씨 $20

도움주신단체: 실업인협회 200불 숭공문화협회 200불 배재동창회 200불 라이온스클럽 200불
코리아타운번영회 $200 총영사관 $300 동우회 200불

총 감 독: 장기철

주 최: 한국민속예술후원회(주소: 619 Bloor St. W. Tor. Ont. M6G 1K8) ☎: (416)534-1085

후 원: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대한부인회, 라이온즈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숭공문화협회 동우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與·野、領袖회담 추진

3黨3役회담 오늘중에

각료引責·政治활동問題등 政局수습대책 폭넓게 논의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빠르면 4일 하오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3役이 참석하는 회담을 갖고 政局梗塞을 풀기위한종합적인 時局收拾策을 논의한다. 3黨3役회의는 野黨측이 각기 代表기자회견에서 밝힌與野領袖회담개최와 총리와 李·張부부사건관련 각료의 引責요구등을비롯하여 경제활성화 정치활동규제자의解禁등 國政전반에관한 현안문제를 폭넓게논의할 예정이다.

어제 民正·民韓등 총장·총무 개별접촉

民正黨의 權翊鉉, 民韓黨의 柳漢烈사무총장은 3일하오 의원회관에서,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林鍾基 民韓、李東鎭국민당총무를 국회에서 개별 접촉을갖고 3黨3役회의에 관해 이와같이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날 사전예비접촉에서는 時局수습을위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되 3黨3役회담에서 합의할수있는것은 그회담에서 해결하고 정치활동규제자 解禁등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領袖회담에 넘기기로 양해한것으로 알려졌다.

民正黨은 이날 民韓·국민당에 대해 하오에 3黨3役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民韓·국민당은 3黨3役회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실질적인 회담이 되기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예비적인 개별접촉을 제의했었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3黨3役회담에 대해『民韓·국민 양당이 기자회견을통해 주장했던 내용을토대로 논의하여 그 처리방안을 협의할생각』이라고 밝히고『柳致松 民韓黨총재가 제의한 與野領袖회담도 논의될것』이라고 밝혔다.

李총무는 이날 개별접촉에서 民正黨에서도 野黨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에대해 의원들간에 강력한 주장이 나왔고 이러한뜻을 고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林鍾基民韓黨총무도 3黨3役회담에서 兩黨代表의 기자회견을 토대로 격의없는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며 여기서 합의하기 어려운부분은領袖회담에 넘길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權翊鉉民正、柳漢烈民韓총장간의 회담에서 民韓黨측은 野黨의 주장이 많이 반영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柳총장이 전했다.

◇民正·民韓 총장의 첫對面 政局硬化를 풀기위한 3黨3役회담에앞서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3役들은 3일하오 각기 개별적으로 예비접촉을하느라 활발하게 움직였다. 예비접촉을위해 議員會館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만난 權翊鉉民正(左)·柳漢烈民韓黨 사무총장.

"景氣회복 對策수립을"

全대통령 閣議서 유언비어解消 公職者솔선토록

◇全斗煥 대통령이 5·21改閣후 처음으로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5·21改閣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주재하고『내각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소신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全대통령은 이날閣議에서『국내경기회복이 더딘것을 선진국 景氣가 침체한 탓으로만 돌리지말고 各部處는 경기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 국무위원들이 전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선진국경제규모에 비해 적은만큼 각부처가 경기회복방안을 마련,실시한다면 선진국의 경기가 계속 침체하더라도 內需경기를 진작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책을 立案,결정할 때에는 관계부처간에 충분히 사전협의하도록 당부 했다。

全대통령은『현재 실업자통계는 외국의 모델방식으로산출하고 있는데 우리실정에알맞는 통계방식을개발,정확한 실업자수를 파악함으로써 고용확대대책을 세우라』고지시하고『앞으로 의식개혁운동을 강력히 추진할것은 물론市中에나돌고있는 유언비어를 해소시키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서도록 당부했다』고 국무위원들이 전했다。이날 1시간20분동안 계속된 청와대국무회의에는 劉彰順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盧信永안기부장、청와대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韓日經協 진전예상

日소식통 李外務임명계기

【東京3日=聯】韓日 양국은 한국정부의 새로운 외무장관 임명등을 계기로 막바지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0억달러 經協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재개할것으로 보인다고 3일 일본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날 한국외무부장관의 교체는 어디까지나 한국내부의 문제라고 공식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한국정부는 외무장관의 교체와 함께 韓日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때문에 양국간의 대화가 활발해질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소식통은 스즈끼·젠꼬(鈴木善幸)수상을 비롯하여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외상등 일본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베르사유 서방선진국 정상회담에 참석차 출국하기때문에 당분간은 양국이 현안해결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를 더 계속하게 될것이라고 전하고 본격적인 韓日 외교접촉은 이달 하순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盧安企部長·李外務 全대통령이 任命狀

全斗煥 대통령은 3일상오 청와대에서 신임 盧信永安企部長과 李範錫외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이 자리에는 朴贊兢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한국일보 533-2361

◇屈從의 대열…아르헨軍포로 구스그린전투에서 英國軍에 투항한 아르헨티나병사들이 구스그린으로부터 英國軍부대로 이송되고있다。이사진은 英國의 AP통신에 의해 2일 런던에서 공개됐다。【구스그린 2日AP電=聯合】

英·아르헨、投石거리 對峙

대처 2週內자진撤軍땐 戰鬪중지

英、스탠리 포위망壓縮 아르헨"모든援助 환영"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3日=聯】포클랜드수도 포트스탠리를 탈환키위해 포위망을압축해온 영국군은 개전 두달째인2일 (현지시간)한국시간3일새벽) 포트스탠리에주둔중인 아르헨티나 군에대해 또다시포격을가한뒤 잠정적으로 아르헨측의 자진철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군 방어진지로부터 투석(投石) 거리까지 영국군이육박, 사방을포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가운데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은 이날 아르헨티나측이 영국측의 항복요구를 거부할것으로 예상, 야당측의 협상요구에도 불구하고 포트스탠리에대한 전면공격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앞으로10~14일 이내에 아르헨군이 포클랜드에서 철수하기만한다면 영국군의 전투행위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갈티에리 아르헨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과의 전쟁에서 아르헨을 돕겠다고하는 나라면 어느나라건 그 도움을 받겠으며 그나라에는 소련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아르헨티나군 최고사령부는 지난2일간 양측간에 소규모충돌만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고 포클랜드 총독 마리오·메넨데스장군이 2일 그의 휘하군대에게 최종결전이 임박했다면서 영국군에게 대패를 안겨주라고 촉구했음을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일간 콘빅시온지도 2일 포클랜드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休戰仲裁 실패 케야르、安保理보고

【유엔본부2日AP·聯=聯合】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2일 유엔安保理회의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등 두 포클랜드 전쟁당사국의 협상대표자들과「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가졌음에도 불구, 양측모두 휴전에 동의할수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보고했다。

케야르총장은 파나마 요청으로 소집된 이회의에서 書面보고를통해 英·아르헨티나 양측이 상호 수락가능한 휴전에 이르도록 하려던 자신의 중재노력이 결실을 맺지못한채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印尼에 大洪水 百76명·死亡·실종

【자카르타3日UPI=聯】인도네시아의 남부수마트라에 최근 금세기 최악의 홍수가 나 적어도 1백37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실종됐다고 자카르타 관리가 3일 밝혔다。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黃善必씨 公報首席비서관에

전임 李雄熙씨 文化放送사장으로

◇黃善必공보수석

◇李雄熙문화방송사장

全斗煥 대통령은 3일하오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次官級)에 黃善必前총리공보비서관을 임명했다。

李雄熙前공보수석비서관은 문화방송 사장으로 내정됐다。

◇黃공보수석비서관略歷▲慶北金陵郡출신·43세▲서울大文理大政治學科卒▲東亞日報기자▲문공부보도국장·공보국장▲국무총리공보비서관

◇李문화방송사장▲京畿龍仁출신·51세▲서울工大修了▲美노드웨스턴大修學▲東亞日報정치부장·논설위원·駐美특파원·편집국장▲청와대공보수석비서관

YOUNG SOOK'S
보석상
o각종보석
o다이아몬드 품질보장
o최저가격
o뉴 디자인
o보석개조 교환매매
o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社會漫評

싸늘한 음식뿐이라…

地平線

『이란군의 비밀무기는 파스다와 바지스』라고 이라크와 싸우는 한 이란군부대를 찾은 서방측 기자가 말하고 있다。파스다는「혁명친위대」를 뜻하는 것으로 호메이니옹의 회교혁명이상을 열렬히 떠받드는 젊은이들의 부대다。파스다는 정규부대와는 다른 지휘체계로 움직이고 있는 특수부대라고 한다。바지스는 지원군부대를 뜻한다。때로는 14~16세의 소년들도 있다고 한다。▼바지스 지원병들은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뒤 전선에 투입된다。이들은 지뢰밭에 전진하는선봉으로 기꺼이 뛰어든다고 한다。최근 이란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에서는 흔히 이들 바지스 지원병과 파스다부대가 정규부대보다 많았다고 한다。그래서 이란군은 장비면에서、특히 이라크의 우세한 탱크나 대포에 士氣로맞서고 있다고 평가되고있다。▼이란은 결국 호람샤르를 이라크군으로 부터되찾았다。싸움의 발단이된 샤트·알·아랍수로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요충이 호람샤르다。이란쪽에서는 80년9월부터 21개월째 끌고있는 전쟁은 끝장나고 있다고 장담하고있다。이와함께 서서히 문을 열어 외교적인 포석을 하고 있다。지난겨울 이란의 사절단은 25차례이상의 해외나들이를한것으로 알려져있다。▼이란은 강력한 反蘇국가인 파키스탄、터키와 통상협정을 맺었다。특히 터키와는 엄청난 돈이 드는 송유관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협정을 맺었다。소련의 프라우다는 그래서 이란이 소련의 은공을 몰라주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이에 대해 이란 여당기관지인「이슬람공화국」은 소련이 양다리를 걸치고 이라크도 도와준 주제에 무슨 소리냐고 맞서고있다。▼샤트·알·아랍수로에 대한 지배권을되찾기위해 시작한 전쟁에 이라크는 한달 약10억달러 (약 7천4백억원)라는 엄청난돈을 쓰고있는것으로 짐작되고 있다。1년동안에 이라크가 꾼돈만 자그마치 2백20억달러나 된다。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카타르 같은 보수파 기름부자 이웃나라들의 돈이다。이대로 간다면 올해안에 1백억에서 1백50억달러가 더 있어야된다。▼그러나 온건파 기름부자들도 요새는 기름시세가시원치않아 호주머니사정이 좋지않다。게다가 파스다와 바지스가앞장선 이란군은 올들어 1천5백㎞의전선에서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다。결국 엄청난돈과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전쟁끝에 두나라는 그옛날 그자리로돌아오고 있는것 같다。어떤형태로 전쟁이 끝날지 아직 점칠순 없지만「또다른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할수있을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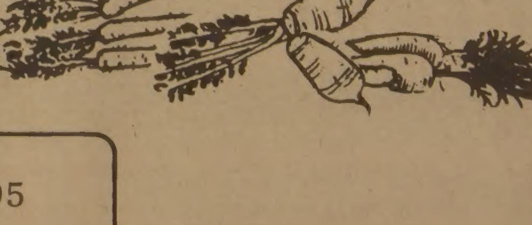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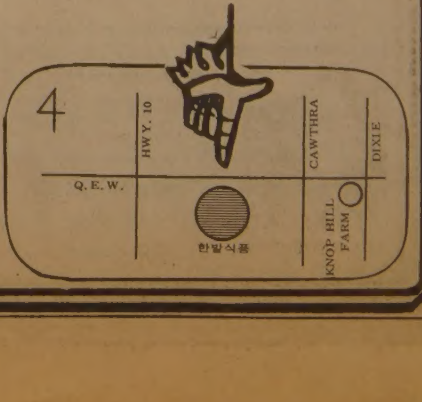
특별대매출



쌀 50LB 장미표(1포제한) (캘리포니아산) --- $15.95
횟감 < 회조개깐것 1Kg ---------- $ 6.99
낙지 2.2LB ---------- $ 6.99
여름철미각 즉석진미식 > 청수냉면 2인용 25봉지 ---------- .89C
앵콜세일 햇김 100장 ---------- $10.95

※햇조기 대량입하
BOX구입가능

솎은배추 · 미나리 · 쑥갓 · 부추
햇굴비 다음주 도착



한밭식품
SOUTH SERVICE RD. MISS.
274－5401 625－1078 임수철 설동란

就業금지 연령 16세 미만으로

全經聯, 法개정建議

全經聯은 취업금지 연령을현행18세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인하조정해줄것을 포함,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수있도록 각종경제 법령을 개선 또는 재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3일 全經聯은 기업활동규제완화를 위한종합건의를통해경제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령·제도·관행을 바로잡기위해 ▲제반규제관련법령 및 제도가운데 민간주도형경제운용확립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모든규제는 적정성및 효율성을 정기평가하여 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全經聯은 정부가 앞으로 기존제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기업이 적응기간을 가질수 있도록 급작스런 시행을 피하고 충분한 예고기간을 둔후에 시행토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住宅 첫買入者의 讓渡稅감면

2년으로 延長

5·18景氣부양策 보완

建設업계 新規사업 계속不振

정부는 5·18경기활성화조치에서 단행했던 신축주택 최초매입자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기간을 당초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3일건설부에의하면 주택경기활성화를위해 앞으로1년이내에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종전15~35%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5%로인하해주기로 했으나 신규건설아파트의 매입자에게는 혜택이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간을 1년더연장키로 한것이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시한부 인하를 단행할때 미분양아파트 1만1천6백77가구와 팔리지않고있는 일반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고 새로 집을지으려는 사람에게 공사를 앞당겨 착공하도록 유도할계획이었는데 아파트등 신규주택건설사업을하려면아파트를지어분양입주하기까지최소한1년이상이걸려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게되어 있으므로 기간을 연장한것이다.

5·18활성화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양도세인하혜택기간의 연장문제는 5·18조치를 보완키위해 설치운영해온 당면경기대책실무협의회에서도계속논란의대상이돼왔는데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어 이같이 보완하기로의견을모은것이다.

정부는 양도세인하를 규정하게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때를 맞춰 정부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5·18조치를 발표할때 양도세인하혜택은 법개정후 1년이내로 했으나 조치발표후 법개정까지의 기간도 소급적용하도록 했기때문에 연장방침이 확정되면 오는 84년5월18일까지 사이에 신축주택이나 아파트를처음사게되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5%적용혜택을 받게된다.

한편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로 64개 주택건설지정업체중 10개회사만 신규건설에 참여해 3천1백43가구분을 착공, 지난해 같은기간의 59%의 저조한실적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분양되지않고있는 아파트나 일반주택매매도 거의 이뤄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企業資金조달 苦戰

CP買入 기피늘어

어음사기사건의 여파로 지난한달동안 CP(신종기업어음)를 포함한 무담보어음의 매출실적이 자금조달에어려움을 겪었던것으로 나타났다.

3일 全國 投資金融協會에 따르면 어음사기사건이후 고객들이 무담보어음의 매입을 기피함에따라 지난 5월말현재 무담보어음의 매출잔액은 1조7천5백42억원으로 전달말보다 7백89억원이나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기업들의 CP 매출잔고는 2백75억원이 감소한 5천6백93억원으로 줄었고 CP발행업체수도 1백94개사로6개사가감소했다.

반면 담보어음매출은 6백36억원이 늘어난 3천11억원인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단자회사 상품의 주종을 이루고있는 무담보어음의 매출이 줄어듦으로써 총매출잔고는 6백23억원이 줄어든 3조1천6백36억원으로 감소했다.

5分間 인터뷰

李範錫 신임 外務長官

『지난2년간 국내정세 못지않게 국제정세역시 크게 변한데다 北傀의 動向과 우리외교가 파고들어야 할 국제환경도 어렵기때문에 앞으로 해야할 일이 적지않을것같습니다. 배워가며 일해나간다는자세로 하나하나 공부할생각입니다』

李範錫 신임외무장관은 부임첫날인 3일상오 청와대에 올라가 任命狀을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후 하오 1시께 외무부에돌아와 간부회의의主宰와 업무파악착수등으로 바쁜하루를 보냈다.

親庭에 다시와 배워가며 일하겠다

日과의 經協태도 조금도 變化없어

49년 社會部직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61년 외무부로 전보된 비정통파외교관이지만 80년9월 통일원장관으로 취입할때까지 20년간 몸을담아와 이번장관부임은 親庭복귀인셈이다.

李장관은 한동안 南北赤十字회담수석대표와 통일원장관, 청와대비서실장을 맡아 한때 외무부를 떠나기도했지만 「外交」는 그의 專攻이나 主業이어서 한시도 국제관계·외교과제를 소홀히 한적이 없다는 얘기다.

—就任辭에서 10·26사태후의 혼란기를 예로들면서 외교관들의 안이한 자세에 경고를 내렸는데…。

『그게 나의 진심이었읍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외무부 직원들부터 우리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여 앞날을 경계하자는 뜻이였읍니다』

—日本측에서는 李장관의 취임으로 韓日經協문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것이라고 기대가 큰 모양인데…。

『지금 내가 그문제에 언급한다면 남들이 나를 경솔하다고 평할텐데…。 또 사실 그 문제도 깊이 알고있지도 못하기때문에 말할처지도 못됩니다. 지금으로서는 7월쯤 돼야 무언가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日本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우리의기본입장이 혹시 달라지지않을까 생각한다면 誤算일것입니다』

—내용이야 여하간에 對日協商스타일이 달라지지않을까예측하는모양인데…。

『經協문제에있어 일본측은 언론기관에 내용을 유출시켜 어떤면에선 언론을 활용해왔다고 볼수 있읍니다。우리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왔는데 앞으로는 할얘기는하고 꼭감춰야할것은 감출테니 여러분도 적극 협력해줘야 합니다』

70년대 南北대화가 한창일때 우리측수석대표로 활약했으며 印度대사때는 막후교섭으로 越南에 억류된 우리외교관의 구출을 위해 협상을 벌이는등 협상의명수로 알려진 李장관은 韓日간의 최대難題인 經協문제에서도 능숙한 솜씨가기대되고 있다。『우리 속담에 舊官이 名官이란 말이 있읍니다。舊官이 하는대로 해보고 修正할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가서 고칠것은 고쳐 가겠읍니다』

李장관은 『정부의 외교방침이 장관이 바뀌었다고 바뀔수는 없는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그의 표정 어디에선가 韓日經協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는것을 읽을수 있었다。【李在武기자】

五輪誘致 기념鑄貨

韓銀서 發行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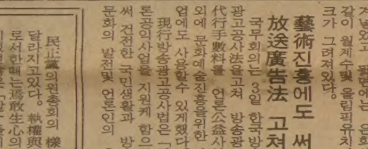
韓國은행은 88올림픽 서울유치를 경축하기위해「올림픽유치 기념주화」(사진)를 발행키로했다.

오는 9월30일부터 발행되는 기념주화는 2만원짜리은화20만개, 1만원짜리은화30만개, 1천원짜리백동화 2백만개등 모두2백50만개이다.

2만원짜리 은화는 소재가 은90%, 구리10%이며 지름은 35㎜, 무게는 23g이다. 앞면에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성화가 그려져있고 뒷면에는 월계수및 올림픽유치마크가 새겨져있다.

1만원짜리 은화는 소재가 역시 은90%, 구리10%이며 지름은 30㎜, 무게는 15g이다. 앞면에는 남대문과무궁화가 그려져있고 뒷면에는 2만원짜리와같이 월계수와 올림픽유치마크가 새겨져있다.

1천원짜리 백동화는 소재가 구리 75%, 니켈 25%이며 지름은 33㎜ 무게는 17g이다. 앞면에는 민속춤을 새겨넣었고 뒷면에는 은화와 같이 월계수및 올림픽유치마크가 그려져있다.



言論서 큰 명석한 頭腦

黃善必 <대통령수석비서관>

얼굴

정부에서 공보업무를 맡은지불과 9년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신임 黃善必공보수석비서관은 언론계에서 잔뼈를키운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 東亞日報에서 사회부 정치부기자로 筆名을날리다 73년 문공부장관 비서관으로 언론계를떠난 그는 문공부보도국장, 공보국장일을맡으면서 정부대변인인 문공부장관의 대변인役을 훌륭한 솜씨로 수행했다. 10·26후 국무총리 공보비서관(1級)으로 발탁된뒤 申鉉碻총리, 朴忠勳총리, 南悳祐총리를보좌해 轉換期의 총리공보업무를 실수없이 수행했으며 네번째 총리인 劉彰順국무총리를 맞아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왔다. 원만한 對人관계와 상대방에게 好感을주는 매너로 동료직원들은물론上司로부터신임을받아왔다.

藝術진흥에도 써

放送廣告法 고쳐

국무회의는 3일 한국방송광고공사法을고쳐 방송광고代行手數料를 언론公益사업외에 문화예술진흥을위한 사업에도 사용할수 있게했다.

現行방송광고공사법은「언론공익사업을 지원케 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및 언론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고 돼있는데 改正法은「언론공익사업과 문화사업을 지원케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및 언론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토록」으로 규정하고있다.

社說

經濟不況서의 脫出

—西方頂上會談에 쏠린 뜻과 눈

우리시간으로 오늘저녁부터 3일간 파리郊外 베르사유宮에서 서방7개선진공업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서 英·加·佛·獨·伊·日등 일곱나라 대통령 또는 首相등과 EEC(歐共市)대표가 참석하는것이다. 우선 이번회담을 계기로 지금 대량失業때문에 고민하는 서방 선진국경제뿐만아니라 한국을 포함하는 中進國(NICS)및 기타 국제경제전반의 당면難題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되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다.

회담에서는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자유세계경제에 관한 전반적 문제와 이미 2천8백만명선을 넘어선 선진국의 失業문제, 만성적 미국의 財政赤字및 高金利문제등이 포괄적으로 또는부문별로 격의없이 토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적 議題는 아니지만 ①미국의 高金利정책과 관련되는 경제成長및雇傭문제 ②美日間 무역마찰로 상징되고 있는 무역不均衡문제 ③開途國에 대한 원조정책을 포함한「南北」문제 ④油價등 에너지문제와 ⑤기술開發문제같은 대목이 거론될 것이라 한다.

이밖에도 政治문제로서 세계의 耳目이 집중된 포클랜드戰爭과, 폴란드事態, 이란·이라크 전쟁, 그리고 팽창정책 견제를 위한 對蘇借款공여規制강화 문제등이 얘기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5년 파리近郊 람부예城에서 제1차 회담을 연이래 8회째인 이번 정상회담은 참석한 구성원국가들이 사실상 자유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실력자들인지라 주목치 않을수 없다.

그에보태 불황과 말썽많은 高金利문제나 日本의 만성적 對美·對EC出超로 인한 무역마찰문제가 俎上에 올려져 세계의 視線은 더욱 따가울수밖에 없다.

미국경제가 자유세계경제를 혼자서 능히 이끌고 가던 時代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세계제2」를 자랑하는 日本경제의 浮上에 따라 美·歐·日 3極구조의 움직임 如何로 그向方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이런點에서 이번 회담이 갖는 意義는 또 각별하다고 하겠다.

만약 이정상회담을 계기로 선진경제가 活性化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成長에 따르는 需要增大를 반영하면서 국제통상交易은 확대될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된다면 국제적 不景氣 특히 미국등 선진국과 産油國을 포함한 開途國수출의 伸張難에 직면하고있는 우리로서는 앞날의 좋은 展望이 서는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정상회담의 내용이 그리 탐탁한것은 못될것같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財政赤字를 쉽게 줄일수 있을것 같지 않고 따라서 高金利문제도 단숨에 해결할수는 없을것이다.

西獨경제가 비교적순조롭게 돌아가고있는것과는 대조적으로 英·佛경제는 모두 구조적난제를 내포하고 있어 호전될 희망이 큰것 같지도 않다. 다만 日本만은 국내물가의 안정과 내수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다 對美·對EC交易의 지속적 黑字기반에 힘입어 아직껏 활력을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日本의 對美自動車수출에서 보듯이 美日무역마찰은 날로 첨예화해서 마침내 보복적인 相互主義立法論으로까지 번지고있다. 여기 이르러 農産物수입문호의 개방과 관세율引下등 이른바 극적개방조치를 발표하였으나 미국과 유럽나라들이 만족치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폐쇄적인「日本시장문제」로서 총칭되고 있듯이 円貨의 과소평가,관세및 비관세 장벽같은 문제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된다면 심각한 對日逆調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도 기회는 돌아오는 셈이 될것 같다.

各國의 利害가 이렇게 엇갈린 가운데 열린 이번 會談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올해에도 토론만 무성한데 비해 실속있는 해결책에는 별로 남기는 것이 없을는지, 그들의 뜻과 향방을 냉철하게 지켜보아야 하겠다.

세네월드將軍 취임

—防衛와平和의힘 增强을 바라며

美國陸軍參謀次長으로 轉任한 존·A·위컴大將의 뒤를이어 오늘로버트·W·세네월드大將이 駐韓美8軍사령관·韓美聯合司사령관으로 취임한다. 우리는 먼저 기회있을때마다 北傀에 대해 따끔한 警告를 함으로써 저들의 對南挑發을 억지하고 또 美議會에서 所信있는 證言을하여 韓國軍 防衛力增强에 크게 이바지한 위컴將軍의 榮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동시에 6·25韓國戰에 장교로 참가했고 10·26직후 다시 韓美연합사작전참모부장으로 근무하면서 韓美兩軍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한 知韓派 세네월드將軍이 그후임자로 결정된데대해 信賴를 표시하고 싶다. 특히 新任사령관은 實戰경험이 풍부한데다가 주요참모직을 두루거치는등 다채로운軍經歷을 쌓은 文·武겸비한 智將으로 알려진만큼 우리는 그가 앞으로 任務수행에있어 탁월한 力量을 발휘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駐韓美軍은 韓國民에게 평화속에서 보다나은 生活을 누릴 權利를 지켜주기위해 우리國軍과함께 戰友로서 성실하게 싸우고 있다. 이러한 韓美양국의 紐帶관계는 레이건行政府가「撤軍」백지화및 韓美保安협력의 강화를 선언하고 부시副統領과 와인버거국방장관등이 訪韓, 美國의 그런 對韓防衛支援정책을 재확인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그 유대를 굳게 이으며 우리韓國民은 최근 몇해동안 안팎으로 잇단 挑戰과 試練에 부닥쳤으면서도 말하자면 이땅의 平和와 自由를 수호하려는 우리國軍의 강인한 護國意志와 駐韓美軍의 전우적인 방위협력이 合致되어「韓美同伴者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왔다고 할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韓國의 平和와 安全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할 歷代 駐韓유엔軍司令官·韓美聯合司令官·駐韓美8軍사령관및 그 휘하장병들에대해 늘 고맙다는 마음과 親近感을 갖고 대해온터이다. 오늘 就任하는 세네월드司令官의 任務에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우리의 信賴感과 협력에 대한 期待를 갖게된다.

다만 모처럼의 좋은 機會인지라 여기서 몇마디 關心事를 말해두고자 한다. 근래에 北傀는 급격히 膨脹主義로 치닫고있는 蘇聯의 극동군사력을 등에업고 작년있은 美偵察機에 대한 미사일공격을 비롯하여 白翎島上空의 불법침공, 休戰線上에서의 銃擊도발, 武裝共匪의 남파등 韓美聯合防衛능력을 시험해보려는 과격한 軍事冒險을 벌였거나 계속벌이고있는 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世襲王朝」를 꿈꾸는 非理性的 金日成이 자포자기한 나머지 전쟁불장난을 하려들지도 모를일이다.

게다가 北傀는 10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特殊부대병력을 보유한채 非武裝地帶(DMZ)아래로 지금도 땅굴을「갉숙이」파내려오고 있다. 韓半島평화에대한 중대한위협이 아닐수없다.

따라서 우리는 세네월드新任司令官에게 被侵의경우 즉각 大量應懲을 하는 공세적인 韓美聯合 방위전략에 필요한 전투력강화, 그리고 위컴將軍이 다짐한 對韓防衛정책의 나토級格上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더욱 힘써 줄것을 당부하게 된다.

지금 韓國은 GNP의 6%를 국방비로부담, 자유진영서는 터키다음으로 높은실정이다. 또 韓國은 美國의 아홉번째交易國이다. 이런 韓國처지와 蘇聯이 東北亞 지역에서 계속 膨脹擴勢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駐韓美軍은 韓美 두나라의 共同國益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것이다.

때마침 금년은 韓美修交 百周年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니 한미양군은 참된 파트너십의 발휘로 血盟의 友誼를 보다 굳건히 다져나가야하겠다.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統一을위한 近努力進展에 큰 기여있기를 서로 다짐해야할 계제이다.

政局往來

◆人事점치느라 저마다 바쁜모습

청와대국무회의가 열린 3일 청와대 주변은 「혹시 무엇이 있지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공석중인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에 누가될것인가를 점치느라 저마다 바쁜 움직임.

국무회의가 열린 상오9시30분부터 기자실에는 기자들이 혹시나하고 대기했으나 李雄熙청와대대변인이 11시15분께 기자실에 나타나『아무것도 없다』고 발표, 이를 본사에 알리느라 기자실은 한때 부산.

비서실장 후임문제에 대해서도 李대변인은『전혀 모른다』면서 대변인실로 돌아갔으며 하오에는 문화방송사장내정, 발표되자 사무실정리에 바쁜 모습.

한편 이날상오 離任式을 가진 李範錫前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나눈뒤 기자실에 들러 잠시 환담을 나눴으나 李前실장역시 비서실장 후임문제에는 일체 緘口.

◆柳총재會見에 의원들 좋은反應

時局수습을 위한 방안을제시했던 柳致松총재의 2일의 기자회견에대해 소속의원들은『제1야당의 총재로서 겸연하면서도 합리적인 代案을담은 내용』이라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柳漢烈사무총장은『국가적難局을 극복하기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면서『사실상 정치생명을건 총재의 겸허하고도 비장한 각오를 어느누구도 저버리지는 못할것』이라고 평가.

그동안 지도부에대해 비판적자세를 취해왔던 許京萬의원도『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위한 고민의 흔적을보였다』, 朴完奎의원은『당연한 주장이지만 중요한것은 총재의 진지하고도 결연한 자세』라고好評.

이밖에도 許景九의원은『소속의원들의 총체적인 흐름을대변한다』, 吳上鉉 徐鍾烈의원은『적절한 시기에 적절한代案』『완곡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깃들여있다』고 평가.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의 일대전환기를 마련하는 기자회견이 되었어야했다고 不平.

"政治생명건 비장한覺悟 누구도 저버리지 못할것"

◆모를심으며 農村문제 생각하자

民正黨은 3일 농촌일손돕기운동의 하나로 京畿道楊州郡 은현면 상태리에있는 4천평의 논에 모내기봉사활동.

權翊鉉사무총장은 모내기를 하는 자리에서『단순한 연례행사로 할것이 아니라 모를 심으면서 농촌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정책에 반영할만한것은 반영하자』고 당부.

權총장은 또『무슨 要式행위로모내기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농민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성심성의껏 일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청.

모내기에는 王相殷중앙위의장 陳懿鍾정책위의장 李相宰사무차장 朴鉉兌정책조정실장등 중앙당 당직자와 중앙위원 在京의원 서울市 각지구당원등 3백50명이 참석했는데 權총장은 民韓黨의 柳漢烈사무총장을 만나기 위해 도중에국회로떠났다.

◆金대사, 베시大將에 感謝牌전달

한달이상 계속되고있는 韓美修交1백주년기념행사는 2일밤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기념晩餐으로 絶頂에 이른 느낌.

韓美양국관계人士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晩餐에서 前駐韓美軍사령관을 지내고 美合參의장으로 임명된 베시大將은 유창한 한국말연설을통해『韓美두나라의관계는 安保부분이 가장중요하다』면서『安保유대가튼튼해질수록 양국에 경제발전과 국가번영을가져올것』이라고강조했다.

이자리에서金瓊元駐유엔대사는 베시大將에게 한국측이 마련한 感謝牌를증정하고 그동안 安保협력에기여한공로에 謝意를 표시했다. 【뉴욕=金泰雄특파원】

記者의 눈

民正黨의「탈바꿈」

民正黨의원총회의 樣相이 달라지고있다. 執權與黨으로서한때는焉敢生心의聖域이었던많은「말」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民正黨의 최근 議總광경은 기자로하여금「혹시 야당의 의총회장이 아닌가」착각할수있을정도로 今昔之感을 느끼게하는 變化요 異變이다.

世稱「李哲熙·張玲子사건 국회」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지난 28일의 議總이 그랬고 국회가 끝난뒤 2일의 議總도 그랬다.

국민들이 느끼고있는 불만의소리가 그대로 회의장에 메아리쳤다.

이러한 議總이 그대로신문에 보도되자 일반국민들은『民正黨이 과연 우리의 심정을 알고 있구나』하고 상당히 반기는 기색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국民과 호흡을 같이하는 정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있다.

市井의 여론을 충분히인식하고 있는듯한 自省과自己批判이 形容할수없는 憤怒로 나타나는 장면도 기자를 깜짝 놀라게했다.

『검찰수사결과보고는 國調權을 발동해달라는 요구와같았다』『黨優位는 어디로갔는가』『장관들이 5공화국의 지도이념을 모르고있다』『지금이 시작이다』『장관들에게 廉恥교육을 시키라』는등의 얘기는 확실히 과거 與黨에서는별로볼수없었던말들이다.

책임정당으로서의 民正黨이 자기省察과함께 행정부를 꾸짖는 選良의 高聲은 자기 한몸을 도사리고 어디엔가 눈치만살피고 팔짱을 끼고 있던 과거의 與黨과는 비교가 안될정도이다.

「野黨專用」으로만 豫約된줄알았던 신랄한 對정부비판은 어쩌면 野黨의 領域을 차지하는결과가 되어 야당이 설자리를 잃게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는것같다.

사실 民正黨은 국민속에 뿌리를 내리는 맑고깨끗한 政黨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는 保安第一主義로 운영되어온게 사실이다.

회의내용이 새어나가면 무조건 代辯人에게 혐의를 씌워 「엄중한 警告」가 떨어지는게 상례였다.

그래서『국민과 호흡을 같이한다는 정당이 정보기관처럼 무슨비밀이 그렇게 많은가』『정당이 관료조직보다 더 硬直되어있다』『劃一的이다』는등의 비판이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黨이 최근들어 黨간부와 平의원 平당원간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회의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공개되고 있으니 큰 變革(?)임에 틀림없다.

사실 民主公黨이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럼에도 民正黨이 국민에게「무서운 權府」라는 인상을 씻지못한다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뇌는「국민속에 뿌리내리는 다정한 정당」은 기대할수 없다.

黨職개편과 함께分業化, 民主化란 이름으로 民正黨이 이같은 變身을 시도하는것은「국민정당」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환영받을만하다. 그것은 지나친 自重自愛가 발전과 성장, 그리고 黨內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있기 때문이다.

山이 높지않아 江을건너지 못하는것이아니고 江이 깊지않아 山을 넘지못하는 것이 아니다.

【李以春기자】

海外토픽

"準식민시대 망령"

★英字 찍힌 T셔츠非難

中共신문들은 가슴에 영어글자가 찍힌 T셔츠를 즐겨입는 중공의 청소년들을 비난했는데 이 영어글자에는 키스·미(키스해줘요)라는 글자까지 있다고.

人民日報는 3일 이름을밝히지 않은 항구도시의 한 소녀가 외국선원들의 눈길을자극, 불미스런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보도. 또 上海의 自由日報는 가슴에 영어 글자를 붙이고 다니는것은「準식민시대의 망령」이라고 청소년들을 비난. 이 신문은 선물을 받기위해 외국인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개탄했다. 【北京=聯合】

1家口當 총기1挺

★스위스, 事故는적어

스위스국민은 1가구당 1정이상의 총기를 갖고 있으나 총기사고는 극히 적다고. 인구6백40만명의 스위스에서 80년중 자살사건은 54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총기자살사건은 그 절반에도 못미쳤다는데 81년중 하루평균 5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뉴욕시에 비하면 극히 대조적. 【제네바=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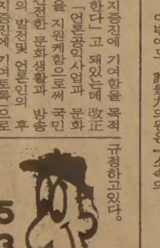
6세소년 금고속에

★4시간만에 救出성공

6살난 소년이 대형금고에 갇힌지 4시간만에 긴급구조반에의해 구출됐다.

말레이지아유엔대표부대리공사의아들인 압둘라·아즐란군은 우연히 금고안에 들어갔다가 갇혔는데 이를발견한 부모가 재빨리 경찰에 연락, 긴급구조반의 기술자들이 드릴을 이용,우선 공기부터 공급해주기위해 금고에 구멍을 낸다음,금고문을열었다는것.

아즐란군은 구조당시 놀란 표정이었으나,부모를보자 크게웃더라고. 【뉴욕=AP】


구독신청은
533-2361

마야 미용실

개업인사 및 특별봉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블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 : 1982년5월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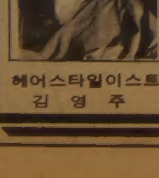
봉사기간 : 5월초~6월말까지(2개월간)

HAIR 부문

*캇트, 파마및 스타일	$ 25 & up
*캇트 및 스타일	$ 9
*샴푸 및 스타일	$ 8
*머리염색	$ 12 & up

MAKE UP 부문

- *신부화장
- *파티화장
- *스테이지화장
- *심는 속눈섭 전문
- *신부드레스 대여



헤어스타일이스트
김 영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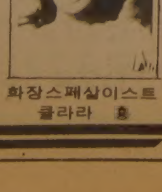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 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미용경력 : 14년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

588—1480(B) 243—8026(R)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가와이 DIGITAL ORGAN은

Digital Excellence
DX

250개 최초의 특허로 등록되었기에

향후 수년동안은

아무도 이같은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되었읍니다.

한국일보 (특집판)

生計와 召命사이 한국의 職業人들

天職에 산다

醫師

現代仁術 100年에 3代만 10여집

人氣직종으로 「계승當然」 專門분야까지 이어받아

尹日善·李容卨·金東益씨등 대표적

◇우리나라 병리학의 泰斗 尹日善박사㊧는 같은 길을 걷는 아들(원자력병원장 尹鐸求박사)과 최신학문을 논할때 요즘도 대견함과 보람을 갖는다고。바른쪽끝은 예비의사인 손자 李樂씨。

의사。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인기 직종에 속한다。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릴수 있기 때문이다。이때문인지 의사 집안에선 대부분 의사가 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洋醫 즉 현대적 의미의 의사란 직종이 뿌리를 내린것은 불과 백년남짓。하지만 의사를 家業으로 내리 지속해온 집안은 무척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가업으로 가장 오래 계속해온 집안은 3대째。대략 1920년대 의사를 택한 집안들이다。

의사 3대 집안으로는 尹日善(86) 李容卨(87) 金東益(83) 申泓秀(58) 鄭世基(59) 李相敦박사(52)등 십여집안이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尹日善박사(병리학)는 세브란스醫專과 서울대의 대교수·서울대총장·原子力院원장·醫協회장·學術院회장등을 역임한 우리나라 병리학의 泰斗。차남 鐸求씨(병리학)가 原子力병원장으로 있고 鐸求씨의 차남 李榮씨가 서울대의대 본과에 재학중이다。尹박사의 3남 鍾求씨(소아과)는 서울대의대교수、4남 鎭求씨(치과)는 개업중。

李容卨박사(외과)는 세브란스醫專교수와 동대학 학장·동부속병원장을 역임한 우리나라 刀圭界의 원로。아들 根洙씨(외과) 손자 元圭씨(내과)가 개업하고 있다。

金東益박사(내과)는 서울대의대교수와 동대학부속병원장을 역임한 우리나라 내과계의 원로。장남明煥씨(내과)는 국립경찰병원장을 거쳐 旺熙학원재단이사장으로 있고 손자基赫씨는 연세대의대본과 졸업반。

申泓秀박사(이비인후과)는 현재 高大의대부속병원장。선친이 30~40년대산부인과의사로 이름을 날린 申弼浩씨。장남(熙洙)이 서울대의대 소아과 전문의로 있다。申泓秀박사는 弼浩씨의 차남。弼浩씨의 장남(漢秀·70년작고)은 서울대의대 산부인과 주임교수를 지냈고、장손(熙徹)이 서울대의대 산부인과교수로있다。申熙徹박사는 내리 3대가 산부인과 의사를 가업으로 택한셈이다。

鄭世基박사는 3대가 모두 연세대의대를 나와 이비인후과 의사를 가업으로 택해온 집안。鄭박사의 선친(起燮)은 26년 세브란스醫專을나와 30~40년대 이름을 떨치던 이비인후과의사。현재 두아들(장남 明鉉·3남大鉉)이 같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약하고있다。

李相敦박사(생리)는 서울대의대교수、中央대의대교수、동대학원장을 거쳐 현재 중앙대의대생리학주임교수。부친은 서울대의 대학장을 하다 6·25때납북된 우리나라 생리학의개척자 李甲洙씨。아들(正烈)이 서울대의대 흉부외과에서 인턴과정을 밟고있다。

의사직종을 가업으로 대를 이어가는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당연한 일로보기까지 한다。의사가 많은사람들이 바라는 선망의 직종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원자력병원장 尹鐸求박사는 家親이 걸어온길을 가업으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어떤권유나 이어 받겠다는 사명감 같은것은 가져본일은 없지만 자신이 의학 그것도 병리학을 택하게된것은 간접적이긴 해도 家親의 영향이 컸다고 했다。어려서부터 가친이 어떤 학문인지는 몰라도 일을 많이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데、존경심을 가져왔다는 것。

그래서 한때 공학에 관심을 쏟다가 의학으로 방향을 틀었다는것。

의대를 나와 임상의사가 되지않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비인기직종인 기초의학을 택하게된것은 전적으로 가친의 영향이 컸다고。

또하나의 큰 동기가된것은 당시 核酸이 암과 연관해서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크게 대두되었다。그래서 암정복에 학문적인 기여를 해보고싶은 욕망이 부풀었다고。

尹鐸求박사는 가친의 뒤를 이어 병리학 그것도 같은 암연구를 하게되니 잇점이 많다고했다。

엄격한 스승인 가친과 학문을 사이에 두고 진지한 대화의 꽃이 피었다는 것。이같은 의견은 尹日善박사도 같았다。

서울鍾路區安國洞159번지에서 46년간 2대째이비인후과를 개업하고 있는 鄭世基박사는 40년대 선친과 갖던 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대화를 이제 입장은 바뀌었지만 아들들과 갖는것이 큰 보람이라 했다。【李光榮기자】

文化藝術人

분위기와 매력이 後代끌어

音樂·文學에 2·3代 많아

문화예술적인 분위기 때문일까。문화예술인가운데는 家門의 業처럼 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의 일을 이어 받아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음악、문학、미술、영화、무용분야에서 문화인 2대、3대를 적잖게 볼수 있는데、음악인의 경우가 특히 많은 편이다。

작곡가 故李興烈씨 가족은 대표적 케이스로 장남 永묘씨、차남 永朝씨(延大교수)、3남 永秀씨등 아들3명이 모두 작곡가로활약하고 있다。李興烈씨의두딸들도 현재 연주활동은하지않으나 모두 피아노를전공한 피아니스트들이다。

우리나라 오페라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테너가수 李仁善씨(作故)의 아들 如珍씨(漢大교수)는 작곡가이고、테너李仁範씨(作故)의딸 芳淑씨(延大교수)도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延大 음대학장인 바리톤黃秉德씨의 아들聖燁씨(延大강사)도 피아니스트。

작곡가 금수현씨(作故)의 아들 난새씨는 현재 KBS교향악단 지휘자로 화려한 각광을 받고있고、작곡가 金聖泰씨의딸 慈卿씨(梨大강사)는 플루트를 불고있다。

서울教大교수로 재직중인 작곡가 朴贊錫씨의 아들 영호씨는 클래식피아노와 재즈피아노 연주활동를 하고있으며 피아니스트 尹琦善씨의 딸 英淑씨도 첼리스트로 활약하고있다。

첼리스트 全鳳楚씨(서울大교수)의 아들 誠煥씨(啓明大교수)는 바리톤 가수로 최근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두딸들은 첼로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白樂皓씨(서울大교수)의 딸 惠英씨、惠海씨도 현재 빈컨서바토리에서 바이얼린과 첼로를 전공하고 있으며、아들政燁씨도 피아노를 배우고있다。

성악가 曺祥鉉씨(檀大)의 세 자녀 永芳씨(피아노)、永美씨(바이얼린)、永昌씨(첼로)는「曺트리오」를 구성、국내외에서자주리사이틀을열기도한다。

文學人 가운데도 子女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일을 이어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작고한 시인 朴木月씨의 아들 東奎씨는 평론가로、馬海松씨의 아들鍾基씨는 在美시인으로 글을 쓰고 있다。원로시인 徐廷柱씨의 아들 承海씨도 在美소설가로、원로 소설가 黃順元씨의 아들 東奎씨도 시인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徐廷柱씨의 아들은 黃順元씨가、黃順元씨의 아들은 徐廷柱씨가 각각「現代文學」지에 추천을 마쳐주어 문단에등단케한것。

여류소설가 崔貞熙씨의 두딸 金知原씨 采原씨는 모두 소설가로 데뷔、어머니의 筆致처럼 섬세한 묘사로 주목받고 있으며 朴花城씨의 세 아들 勝俊씨와 勝世、勝傑씨도 중견평론가 소설가、번역문학가로 활동하고 있다。최근에는 원로여류소설가 張德祚씨의 딸 朴鈴愛씨가작가로데뷔、베스트셀러를쓰기도했다。

화가들의 아들 딸들가운데도 아버지를 따라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를 하는경우가 많다。작고한 金圭鎭씨의 아들 永基씨、故李象範씨의 아들 健傑씨、許小痴씨의 손자 증손자 楗文씨가 모두 동양화가다。

또한공예가인 朴星三씨의 딸 櫃子씨、朴得錞씨의 아들 연도씨、朴珏淳씨의 아들 演沉씨、吳之湖씨의아들 承雨·承潤·손자 秉郁씨、李恒星씨의 아들 承一씨、여류화가 裵正禮씨의 아들 朴秦讚씨는 모두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다。【禹桂淑기자】

企業人

해방전 創業이 아직 盛業중

소규모 가내공업 연합체 성격의 京城織紐를 1919년 金性洙씨가인수、당시자본금 1백만圓의 京城紡織주식회사로 창업한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기업이자 한국기업의 元祖로 처지고 있다。

이밖에 일제때부터 처서 2대이상 연륜을 쌓은 기업이라면 호남토착부호 金秊洙(仁村金性洙의계씨)가 1924년 창업한 三養社와、「朴承稷상점」으로시작한 朴斗秉의 OB그룹(現두산그룹朴容昆씨)、지금은쇠잔한朴興植의和信산업등셋정도에불과하다。

이들처럼 세상이 다아는「원로기업」대재벌은 아니지만 30년가까운 역사에 출발때의 동업관계가 2세들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불화없이 꾸준한 발전을 해오고있는 두、세개 기업들이 본받을만한 전통기업으로 국내기업인들간에는 손꼽히고 있다。

지난59년 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永豊鑛業은 아연、납、은등 비철금속계 국내최대광업체로 성장하는동안 23년의 社歷을 겪으면서 張炳希、崔基鎬양씨의 창업당시 동업관계는 아들들인 張哲鎭(永豊상사사장)、崔昌杰(고려아연사장)양씨代에까지 동업기업의 귀감처럼 계승돼오고 있다。

러키의 具仁會-許愼九양씨나、연륜은 이보다 짧지만 고려합섬의 張致赫-金종호씨등의 동업관계도 2세들에까지 이어지고있어 동업만하면 거의가 망하는것으로 돼있는 어두운 우리풍토에 하나의 빛이되고있다。

그러나 창업에서 지금까지 기업을 하나의 특징있는 家業과 같은 분위기로 꾸려오고있는곳은 중·소기업、그중에서도특히철공소、기계공작소등의공장에많다。

기계공업이라야 우리의 역사는 통틀어 40년남짓한데 불과하고 그것도 일본사람이 하던것을 물려받은것으로 日人경영의 철공소등에서 선반공부터 견습하거나 사환으로있으면서 어깨너머 배웠던사람들이 해방후 스스로 기업을 하며 日人공장의분위기를그대로 답습해오는때문인것같다。

1947년당시 화폐 4만8천환의 자본금으로 金三萬씨(작고)가 晋州에서 창업한 大同工業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어려운 同業도 오손도손 中小기업·機械분야 많아

일제때 日本에서 日人철공소에서 일하던 金씨가해방직후 설립한 이회사는현재 자본금60억원、종업원 2천3백명、年間매출액6백억원이 넘는 경운기、트랙터생산의 대회사로컸다。

창업주 金씨의 장남인相秀씨가 현재 사장으로있는 이회사는 아직도 가족기업의 독특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大邱의 부호 呂敦九씨(3년전작고)가 일으킨 大邱중공업(1914년설립)도 가족기업으로 2대를 내려오는 좋은 예。

현화폐로 환산해 5백만원으로 창립된이회사는현재 장남 寅榮씨(35)가75년부터 경영을맡아 大邱市院洞에 제2공장까지 세우고 선반등 공작기계와 인쇄기계를 생산、年間매출액이 14~15억원에 달한다。【金晴鎬기자】

노점상

父母의 삶의 터전 고맙고 값진 거죠

남들은 그까짓 노점하고 웃을지 모르지만 그에겐 가족을 먹여살리는 어엿한 삶의 터전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비록 賤하고 貴한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한다는 것은 무엇이나 값진 것이다』

서울 靈泉시장(西大門區 靈泉洞)의 노점상인 宋明鎭씨(29)는 어버이날 부모님의 가슴에 한송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자신의 노점에서 파는 인조카네이션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은자못 흐뭇해 하셨다。

부산한 장터 한귀퉁이에 한평반이 될까말까한 宋씨의 액세서리 雜貨露店엔 흔히 시골장터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이 그득 쌓여있다。옷걸이、솥、빗、머플러、손수건、비누갑、고무줄、나프탈린、손거울에서 10원짜리 바늘、50원짜리 어린이머리핀과 몇천원짜리 허리띠등。그런 宋씨의 노점을 반지、브노치、목걸이등 인조액세서리가 그럴듯이 빛내준다。

宋씨가 이노점을 물려받기까지 아버지 宋載貞씨(59)는 오랫동안 골목과 장터에서 고난의땀을 흘렸다。아버지 宋씨는 10여년전 시골서上京한뒤 구멍가게、신발가게、액세서리노점등을전전하다 3년전 이노점을 아들에게 대물림 했다。

지금 상인들은 옛날같지가 않다。家業의 傳受란게 별로없고 특히영세상인들은「家業」이란말조차 듣길 꺼린다。「가난을 벗기위해」좀 돈을 벌면 자식에겐 다른 직업을 갖도록한다。

다른資格證 있어도…"고생배운다"

◇露店이야말로 예부터 庶民의 哀歡이 서려있는 직종이다。가난한 노점이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땀의 일터를 소중히 여기며 가꾸고 있다는 宋明鎭씨。

그러나 영세상인 宋씨는 다르다。부모가 물려준 業을 고맙게 여기고 살려고 애를 쓴다。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宋씨는 전자통신과 텔렉스기술자의 자격증도 갖고있고 딴곳에 취직하려면 할수도있었으나 부모의 고생을 땀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에 노점을 물려받았다。

노점이 잘 될때는 한달20~30만원 벌이가 된다고했다。부모한테서 독립、결혼한뒤 부인과 딸둘이 있는 4식구의 가장이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대접을 받을 때 가장 기쁘고 그렇지 못할때는 서럽습니다』宋씨는 장사를 떠나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이 오가는 사회가 제일이라고 말한다。

『야、이런걸 물건이라고 팔아』宋씨와 얘기하는중 허리띠를 사러온 등산복 차림의 30대 남자가 값싼 1천원짜리를 내놓자 내뱉은 말이다。『제일 좋은것 없느냐』는 그 손님에게 5천원짜리를 내보이자 비싸다며 가버렸다。

宋씨는 10원짜리 바늘하나 사는 손님이 친절하게 대해줄 땐 한두개를 더 집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趙聖鎬기자】

外信안테나

◆鄧小平、레이건초청=중공의 실권자인 당부주석 鄧小平은 오랫동안 대만을지지해온 레이건美대통령과 배리·골드워터공화당상원의원에 대해 北京을 방문토록 초청했다고 중공을 방문중인 하워드·베이커美상원원내총무(共·테네시)가 2일 밝혔다。【北京=AP】

◆아바나非同盟外相會議=94개비동맹회원국 외상및 고위관리들이 참석하는 비동맹외상회의가 2일 쿠바의 아바나에서 개막되어 포클랜드분쟁과 관련、아르헨티나지원여부문제、오는 9월 정상회담장소로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선정하는 문제、아프간문제등을 토의하기 시작했다。【아바나(쿠바)=AP】

◆美日 내일頂上회담=레이건美대통령과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은 베르사유 西方7개선진국경제정상회담 개막에 앞서4일 파리에서 美日정상회담을 가질것이라고 정부대변인이 2일밝혔다。【東京=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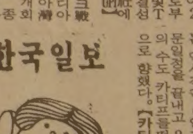
◆UPI、미디어·뉴스社에 팔려=세계4대통신가운데 하나인美國의UPI통신이2일 E·W·스크립스社로부터 일단의 美신문·유선및TV방송소유주들에의해 결성된 새회사 미디어·뉴스社에 매각됐다。【뉴욕=UPI】

◆GCC、이란·이라크戰종식 平和案 마련=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페르시아灣협력협의회(GCC)6개회원국은 이란·이라크戰을 종식시키기위한 3개항의 평화안을 마련했다고 쿠웨이트의 알·안바지가 2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GCC소식통을 인용、이평화안이▲즉각적인 휴전▲이란영토로부터 이라크軍의 철수▲분쟁해소를 위한 협상개최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고 전했다。【바레인=路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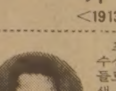
◆요한바오로2世 바티칸으로=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역사적인 6일간의영국방문일정을 끝내고 2일웨일즈의 수도 카티프를떠나바티칸으로 향했다。【카티프=AP】

한국일보



文豪의 名言

카 뮈
<1913~1960>



프랑스作家。노벨文學賞수상자。農業노동자의 아들로 舊佛領알제리에서 출생。대학에선 哲學을전공。2차大戰중엔 對獨抵抗 운동참가。「시지프의 神話」「異邦人」「反抗的人間」「페스트」등。

나는 聖者보다는 敗北者에 훨씬 連帶感을 갖는다。나에겐 히로이즘이나 聖者의 德 같은걸 좋아할 마음은 없다。나의관심은 오직「한사람의 人間인것」에 있다。

× × × × ×

聖者 보다는 敗北者에 連帶感을 갖는다

194×년4월 佛領 알제리의 縣廳소재지 오랑에 페스트가 번져 다른地區와차단、市門의 폐쇄로 부모와 자식、남편과 아내、그리고 戀人들은 분리된채 시민들은 그들대로의 방법으로 病魔와 대결、人間의 極限狀況에 따른 本質露呈이 행해진다。

길고긴 鬪病활동중 크리스머스가 다가올무렵 페스트는 쇠퇴、市門은 이듬해 맑게갠 어느아침 열려진다。사람들은 相逢의기쁨을 맛본다。

이때 작가는 독백한다。「자기를 자신이란 사소한일에 執着、오직 그들의 사랑의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란 사람들은 때때로 보답을 받는다」이에반해「人間을넘어 상상도 못할만큼의 뭔가에 눈을뜬 사람들엔 回答은 끝내 오지않았다」

소설「페스트」(1947)는 작가자신의 표현에따르면 惡疫유행과 어리석은戰爭、그리고 나치支配下에있던 프랑스 이 세가지 각도에서 人生의不條理를 제시、결과에 있어 自由로운脫出을 제창하려는 의도아래 쓰여진것이었다。

카뮈(Albert Camus)는 大戰중 獨軍에 쫓긴 많은 지식인이 알제리에 피신한것이 轉機가돼、지드를 고문으로하는 文藝誌「方舟」발행으로 그의 문학적素地를 만들었다。戰後엔「콤파」紙의 主筆로 활약、自由를위한 예리한 論評을 폈다。

그의사상은「不條理의 哲學」이라 불려「시지프의神話」속에 體系的으로 펼쳐져있다。

人生의不條理는 있는그대로의 現實에 지나지않으며、그現實로 부터 한 발짝도 떠날 없이、모든 飛躍과 抽象을 배제、神없는 原理를 살아가려는 그의立場은 기독교的神의救援을 거부함과함께 커뮤니즘과도對立、知性的인 제3의 입장을 확립하려는데 있었다。

한편「不條理」란 人間觀에서 카뮈는人間의行動에 意味와 限界를부여하는「反抗」이란 생각에도달한다。이생각은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에대한 그의사상적대결에서 비롯된것으로「反抗的人間」(1951)등에 상세히 논해져있다。이「反抗的人間」출판후 人間觀등의 차이로 사르트르와 결별하게된다。

「오늘 人間의良心에 課해진 諸問題를 明白히 했다」는 이유로 1957년 노벨文學賞을 수상、많은 활약이 기대됐으나 불의의 자동차사고로 60년에 죽었다。

인용은「페스트」에서。

제13기 名人戰 挑战5番棋

第1局 第2譜 1~11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徐奉洙
黑(名 人)曺薰鉉

이날은 새벽부터 궂은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정각10시。名人이 갈색양복에 노타이차림으로 나타나 윗자리에 앉는다。이보다 9분늦어서 회색콤비에 역시 노타이차림의 도전자가 비에 젖은채 뜨락에서 올라왔다。우산을 택시에 놓아두고 골목길을 걸어왔다며 자리에 앉은 얼굴이 약간 참배해 보였다。기록을 맡은 여류기사 趙英淑초단이 도전자의 시계에서 지각한 9분의 배인 18분을 먼저 공제할때 한국기원

趣向에는 趣向으로

사업이사 金鶴洙5단이『시작하시죠』하여 갑자기 긴장감이 감돈다。관례대로 名人이 白돌을 듬뿍쥐고 도전자가 黑돌1개를 판에다 놓았다。名人이 쥔돌은 도합 28개。도전자의「홀수 黑」이 빗나가 名人이 黑으로 두게 되었다。그리고 즉시 대국개시。

黑1、3의 대각선은 취향이다。보통은 3을 4자리에 선착하는데 이바둑은 당연한 白4를 예상하고 黑5로 적극적 전법을 구사할작정이다。과거 덤이없는 시절에는 우선 우상귀를 黑「가」로 굳히는것이 거의 상식이었다。

白6。도전자도 취향으로 맞섰다。이 수로「가」에 걸치고 黑「다」에 협공하면 가장 알기쉬운 기본정석이 된다。

黑7은 12분。白8에 대해 黑9로 응수를 주저한다。【一凡】

일간지 발행 축 1주년기념

토론토 한국일보의 무궁한 발전과 곧바른
교민사회를 위한 지팡이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GOLDEN CRAFT 김국일

●트로피·감사패(50% OFF)
●각종특수인쇄(나무·유리·의류·동판등)
●간판·실크 스크린

B)247—8870 R)242—4319

한국일보 (특집판)

生計와 召命사이 한국의 職業人들

우리는「代물림」

公務員

靑山을 지키는 清白吏

「山지기」에서「집배원 3世」까지

公職者의 代물림、공무원의 代물림에는 다른 어느 직업이나 직종에 비해 특이한 점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당사자들의 의견만으로 代물림이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철도、체신、산림관계등 전문적인 성격을 띠는 분야에서 흔치않지만 많이 볼 수 있다。

공무원이 代를 물림에 있어선 자랑스런직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가장이던 아버지가 殉職을 당해 家系를 이어가기 위해 달갑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일을 이어받는 경우로 大別할수 있다。

81년도 靑白吏賞수상자 李寬雨씨 (50·농림기사·南部營林署榮州관리소春陽보호구)는 代를 물린「山지기」。산을 푸르게 가꾸고 지켜온지 22년에 이르는 李技士가 둘째 아들인 李상율씨(30·慶北盈德英陽보호구 농림技員補)에게도 山林職을 택하도록 허락한 것은 2년전。

太白山줄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山과 함께 호흡하며 어린시절을 보내 山과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시피한 李기사는 역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따라 걷겠다고 나선「둘째」가 대견스럽게 보였다。그렇기도한 것이 여러代를 太白山아래 奉化에서 뿌리내려온 李씨가족인지라 아들이 역시 같은 지역에서 대를이어 뿌리가있는 직업을 가지겠다고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은 티끌만큼도없고 오직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게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李기사는 설명한다。

그러면서 李기사는『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本分을 망각치않고 서둘러 황금을 좇기만하는 世態를 미워하며 자신이 하는일에 최선을 다해 그분야에서 제일가는 사람이 되는게 행복이고 보람이 될것』이라고 代물림의 辯을 설명한다。

代물림공무원엔 철도건널목간수가 있고 체신가족도 있다。특히 체신의 집배원가족과 철도가족이 두드러지게 많다。

76년9월 모범공무원으로 근정포장을 받은 서울西大門區義州路건널목 女子간수 金淑子씨는 아버지、오빠가 철도공무원이었고 외아들까지 철도공무원으로 보냈으며 사위역시 철도공무원을 맞이한「철도가족」의 대표격。

「철도가정」에서 태어나 操車手로 일하던 남편과 결혼、그남편을 철로에 잃고 남편을 이어 남편과같은「철도가족」으로 뛰어든 金씨의 현재 직급은 기능직9급。

27년간 義州路건널목 간수로 일해오고있는 57세의 金씨가 말하는 직업관은『무슨 직업이든 정성을 기울여야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드러난다。

金씨는 아들이 철도공무원이 되려는데 처음엔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나『그녀석이 철도공무원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家業이 되다시피한 철도직을 이어가게돼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먼저들었다』고 代물림 순간의 마음을 설명했다。

慶南咸陽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는 朴炳基씨(41)는 71년전 집배원 이었던 從祖父 朴씨를 이어 받은 아버지 朴敬來씨 (58년 사망)가 하던 집배원일을 다시이어받아 지금도 집배원으로 일하고있는「집배원 3世」。

98년의 역사를가진 郵政史와 거의 맞먹다시피하는 朴씨一家의 집배원대물림은 겉으로보기엔 平凡하기 이를데없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뒤 그 조카가 그일을 받아 하게됐고 아버지가 세상을 버렸으니 그 아들이 우편낭을 이어짊어진것이다。 【河長春기자】

政治人

2代도 10여명…3代 못잇는「祝杯」

용감한 兄弟 議政史에 12名

한세대를 약간넘는 짧은 헌정사라 政治人 3代는 아직 없다。

그러나 2代를 잇는 정치 家門은 열손가락을 꼽을 정도。

父傳子傳으로 代를 잇게된 동기를 보면 부친의 有故로 그자리를 차지한경우가 가장 많은것 같다。

가장 가까운 예를 보면 현 民韓黨의사무총장 柳漢烈의원은 柳珍山 前新民黨당수가 돌아간뒤 錦山에서 代를 이어 출마했었고 鄭大哲씨 (9·10代의원)는 鄭一亨박사 (2~9代) 가 議員職을 상실한직후 실시된 補選에서 바로代를이었다。申翼熙 趙炳玉 金性洙씨가 2세에까지물린 정치인집안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申河均씨는 廣州에서 3·5·6代의원、趙尹衡씨는 城北에서 5~8代의원을 지낸뒤 11대에 와서는 그의 동생인 趙舜衡의원(無)이 바통을 이어받은 異色的인 정치家門이 되었다。

金相欽씨는 高敞에서 5·6代의원에당선되었었다。金九씨의 아들 金信씨도 교통장관에 9代 維政會의원을 지내기도 했다。현재 民正黨의원인 李海元 曺淇相 金顯煜의원도 2世 정치인。

李의원의 부친 李泰鎔씨는 堤川에서 3代부터 연속 3選을 했고 曺의원의 부친은 靈光에서 역시 4選한 (制憲~4代) 曺泳圭씨。曺의원은 또 奇人으로 유명한 朴炳培前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그리고 唐津에서 制憲의원을 지낸 金用在씨가 金顯煜의원의 부친。自由黨시절의 유명한 李在鶴씨 (制憲~5代)와李敎善씨(8代)도 父傳子傳으로洪川에서代를이었다。

固城、忠武선거구는 10代의원선거에서 나란히 이곳출신 정치인의 2세를둘씩이나 배출시킨 보기드문 고장。崔甲煥(3代)崔載九(8·9·10代) 父子에 金紀燮(8代) 金東旭 (10代) 父子가 바로 이케이스。鄭求瑛씨 아들 鄭旋永、徐珉濠씨아들 徐範龍씨등이 11代 선거에서 2代정치를 겨냥하다 실패했다。

할아버지와 손자 정치인의경우도 여럿있다。

民正黨의원인 金鍾仁의원은 街人 金炳魯씨의 손자이고 李宅敦前의원은 손녀사위。그리고 民韓黨의 吳上鉉의원도 制憲의원 吳基烈씨의 손자인데 부친 吳在天씨가 鎭安에서 출마했으나 苦杯를마셔 3代정치家門의 기록수립에 실패했다。民正黨총무인 李鍾贊의원은李始榮부통령의從孫。

「형제는 용감했다」는 케이스도 議政史에 12명이있다。

金鍾泌전총리와 金鍾翊씨(7·8·9代)의 경우를 비롯하여 千世基(3·5代)千命基(8·9·10代、현보사부장관) 형제、그리고 申鉉旭(8代) 申鉉洙의원(民韓)、趙尹衡(5~8代) 趙舜衡의원(無)、李振僖(9代) 李相僖의원(民正)、그리고 鄭海永(3~10代) 鄭一永씨 (9代)등。千씨나趙、申씨는 모두 형의 자리를 아우가 계승한 경우。

金鍾哲국민당총재는 11代선거에서 金鍾植씨에게 바통을 넘겼지만 실패했다。

기타 인척관계의 정치가문을 보면 故朴正熙대통령의 경우、사위 韓丙起씨 (8代)、조카 朴在鴻의원(民正)、陸英修여사의 오빠 陸寅修、그의 조카사위 張德鎭씨(8代)등을 들수있다。 【黃昭雄기자】

法曹人

家門이 傳統으로 4父子 법관도

父女·夫婦에 상당수는「사위代잇기」

우리나라에서 3代를 이은 법조인은 舊韓末과 일제시대 판사를 지냈던 金秉度씨(작고)와 盧興鉉씨(작고)가족으로 알려지고있다。金씨의아들 金完燮변호사(작고·전대검검사)와 손자金在澈판사(43·서울고법)가3代。

盧씨의 3代는 盧永斌변호사(75·전성균관대법정대학장)와 아들 盧宗相변호사(46·전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가장많은 법조직계가족은 文夢善씨 (작고)의 4父子법관을 꼽을수있다。春川 淸州 大田 全州지법원장을 지낸 文씨는 장남永克(56·전光州지법원장) 永宇(49·전大邱지법판사·南原지청장) 永吉씨(45·전原州지원장) 등 3형제를 법조인으로 키워냈다。이들3형제는 현재 모두변호사로 활약중이다。文씨형제들은 모두 부친이 어려서부터 미리 정해놓은길을 그대로따랐고 부친의 뜻이 순조롭게실현됐다고 말한다。

또 5대 법무장관과 3·4대 대법원장을지낸 趙鎔滿씨 (작고)의 차남趙彦판사(47·사법연수원장) 3남趙胤판사 (44·安東지원장) 는 3부자 법관。16~18대법무장관과5·6대 대법원장을 지낸 閔復基씨(67)와 아들閔庚宅씨 (47·전서울지검부장검사) 는 현재 父子변호사로 활약중。전대법원판사 梁會卿씨 (70·변호사)의 아들梁三承판사 (35·서울지법)와 사위尹炯煥판사 (35·서울형사지법)、전대법원판사 孫東頊씨 (작고)의 아들 孫智烈판사(35·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韓聖壽전대법원판사(72)의 아들 韓大鉉판사(41·서울민사지법)와 사위 李會昌대법원판사(47)、李一珪대법원판사(60)의 아들 李昌求판사(34·大邱지법)는 대법관의 2세법관들。柳鉉錫변호사(55·전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의 아들 柳元奎판사(30·서울형사지법)、金宋庸변호사(69·전光州지법판사)의 아들金永甫판사(40·堤川지원장)、국회의원을지낸 陳馨夏변호사(75·전大田지법부장판사)의아들 陳成奎판사 (41·사법연수원교수) 등도 모두 2대 법관집안。

洪璡基씨 (62·전법무장관)의 3남 洪錫肇검사(29·서울지검)도 부자검사。대검검사 법무차관 국방차관 보사부장관을 지낸 李埛鎬변호사(65)와 딸 李玲愛판사(33·서울형사지법)는 유일한 부녀법조가족。

형제법조인으로 高在鎬(68·전대법원판사)高在亮씨(60·전光州고법부장판사)가 현재 모두 변호사이고 맏형高在宣씨의 아들 高重錫씨(45)는 현재 가정법원판사。또 高在鎬씨는 崔鍾泳판사(44·서울고법부장) 郭東曉판사(36·仁川지원)를 사위로 삼아 가족5명이 법조인。

최초의 여판사였다 약물중독사고로숨진黃允石씨와黃石淵변호사(49·전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는사법사상유일한남매판사。

부자 형제법조인과함께많은형태의법조인가족은 장인과 사위가 법조인인 경우。대부분의 법조인 가운데는 자식대에 뜻을 못이룰경우 법조인을 사위로 맞아들이길원한다。전 법무장관 李喬中변호사 (61) 가 林承寬검사를、李英燮전대법원장 (63)이 姜哲求판사 (40·大田지법)를、전법무장관 吳鐸根변호사 (61) 가 陳成奎판사를、전법무장관 李鳳成씨 (67) 는 崔桓검사 (39·대검형사 2과장) 를、方順元변호사 (67·전대법원판사) 는 金光年판사 (43·서울민사지법) 를 사위로 맞았다。 【林承茂기자】

◇文夢善씨 (작고) 의 4부자법관。뒷줄 우로부터 장남 永克 (56) 2남 永宇 (49) 永吉씨 (45) 3형제。

教育者

一家族 6名이 함께걷는 師道

權校長·아들·딸·며느리

"권유만으로 되는것 아닌데…"

옛날의 교사는 안정된 직업인중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좀 다르다。

그럼에도 강원도 鐵原 신철원국민학교權熙文교장(60)일가는 代를 잇는 교사집안이다。1대격인 權씨、2대인 장남 權允重씨 (38·洪川가구국민학교 주임교사)、2남 吉重씨 (34·春城동래국민학교주임교사)、딸 貞重양 (25·春川유봉女中교사)、그리고 두아들의 며느리 알가 6명이 모두 교단을 택해 직업인으로서의 보람을 찾고 있다。

『특별히 아들 딸들에게 교사직을 택하라고 권유한적도 없는데 모두들 자연스럽게선생님이 되더군요…』

權교장 자신은 교직이「성스러운 직업」으로 알고 37년간 교단을 지키고 있으나 커가는 자식들에게 한번도아버지위 뒤를 이을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아들 딸 말고도 그가 가르친 제자중엔 교사가된 사람이 많다。春川의 東園특수학교 교장 文聯昌씨 (47) 도그의 제자중의 한 사람이다。

權교장은 늘「깨끗하게 사는 길」은 교사가 최선의 직업이라고 강조해왔다。아마도 이러한 그의 신념이 은연중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전파됐는지 모를 일이라고 제자선생이 많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그의집家訓은「청렴결백」。이말에 가장 잘 들어맞는 직업을 찾는다면 바로 교사일것이다。지금의 교사는 비교적 보수라든지 그직업으로서 얻어지는 물질적 반대급부가 적은편이다。

37년간 몸담아온 權교장의 얄팍한 월급봉투가 그같은 뜻을 명확하게 대변해준다。직책수당 (3만원) 교직수당 (4만5천원) 특수지근무수당 (1만원) 을 모두합쳐 월47만5천원을 받고있다。

「가르친다」는 보람을 빼면 오늘날 누가 그같은 직업을 택할것인가。그럼에도 그의 아들 딸 며느리들은 묵묵히 또다시 교사의 길을 걷고있다。

보람만이 課外수당

『사회적 여건이 어렵다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직을 택해야 할것입니다。교육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것이 아니며、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사회를 살찌게하는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權교장이 처음으로 교단에 선것은 해방되던 해인45년。그해 10월 그는 春川郡의 행정서기를 떨쳐버리고 3종교원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교사가 되는 평소의 꿈을 실현했다。첫부임지는 春城郡내의 남산국민학교 6학년 교실이었다。

현재 대학원과 대학에 다니고있는 나머지 두아들도 다 교단에 설것을 아버지에게 굳게 약속했다。그리고 그아들딸의 손자대에 가서도 교사가 나올것이라고 權교장은 믿고있다。 【李鐘九기자】

先進國선 4만여종까지…컴퓨터産業 발달되면 50%가 없어질지도

한국職種 2萬개

현재 노동부가 推定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는 1만5천~2만여種。

미국의 4만5천種、일본의 3만5천種에는 못미치지만 자동차의등장과 함께 운전사、안내양、잔돈바꿔주기등이 등장하고 대신 인력거꾼이 사라졌듯이 과학이발달되면서 생계의 수단인 직업의 종류는 浮沈을 거듭하면서도 계속늘고있다。

15세기에 구라파에는 약2백개의 기본직종이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약2천~3천개로 분화되었다。그것이 그나라 산업·문화 발전도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4만2천~4만5천개의 직업으로 급속히 재분화된것。

우리나라의경우도 50년대에는 기계부품이 1백개 안팎인 자전거정도를 만드는 시대에서 60년대는 부품이 1천개 필요로 하는 흑백TV、오토바이、70년대는 3천여개부품이 필요하는 컬러TV시대에서 80년대는 1만개부품의자동차등 중화학공업시대에 접하면서 부품10만개시대로 향하고 있는단계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은 농업·어업·상업등 細分되지않은 상태와 2·3차산업、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징인 각종 서비스산업에서 수많은 전문업종이 생겨나고있다。

2차산업의 경우에서만도 섬유·신발·가구·식료품·紙類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생산부문과 화학·금속·기계·전기구·수선기계등에 걸치는 중화학산업 등으로 나눠진다。

이뿐만아니라 불과몇년전만해도 이름도 듣지 못했던 생소한 분야인생명공학이나 반도체분야등도 새로운 직업을 낳고 있다。

이와함께 관계자들은 전자·컴퓨터의 발달에따라 앞으로 얼마후엔 지금까지 있어왔던 직업의 50%가 소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盧[illegible]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28>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⑧

수지한테 뿌리침을당한 손이 무안한지 인재도 유리컵에 꽂힌 장미꽃을 뽑아 그걸로 수지의 손등을 툭툭쳤다。수지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의 입가에 떠도는 미소는 태평스럽다못해 바보같았다。

가엾은 오목이、허구 많은 남자중에 하필 이따위 남자를 좋아했을게 뭐람。수지는 한없이 못나보이는 인재를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오목이가 좋아했던 남자로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개탄했다。

눈물마저 핑 돌았다。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회한과 갑자기 엄습한 동생에 대한 측은지정으로 수지는 뒤죽박죽이 돼있었다。

『나 약혼했어。우리 사이는 끝났단 말야。뭐라고말 좀 해봐。참을 필요없어』

인재의 태도를 종잡을수가 없어 수지가 다시한번 이렇게 강조했다。

인재의 얼굴에 싸늘한 경련이 지나가더니 벌떡 몸을 솟구쳤다。

『내가 참고있는 건 말이 아니야、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수지의 따귀를 몇번 후려쳤다。수지가 테이블위로 픽 쓰러지면서 울기 시작했다。인재는 비단결처럼 곱고 윤기나는 머리를 산발하고 어깨를 흔들면서 우는 수지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심중이 착잡하다못해 고약했다。

수지와의 끝장을 예상안한 바는 아니었다。그가 아무리 끝수 서울뜨기에 비해선 많이 어리숙하다해도 그만큼이나 예고된 상황을 못알아차릴만큼 둔하진 않았다。

그러나 젊은이다운 감상으로 그 끝장이 아름답길 바라고 있었다。그래서 수지의 속 들여다뵈는 거짓말、어떤지 신파조의 몸짓까지도 미화하려 들었었다。그는 끝까지 수지를 아꼈다고 자부하고있었고 그 아낌이 매우 고통스러웠으니만큼 그 보답이 사랑의 결실은 아니더라도 설마 이렇게까지 추악하게 될줄은 몰랐다。

차라리 안만나니만 못한 이상한 만남이었다。이상한 장소에서 공교롭게 만나서 잠간동안에 당한 저속한 농락에 의해 한껏 우습게된 자기꼴을 생각하면 퉤퉤 침이라도 뱉아주고 싶었다。

인재는 수지와 자기자신에게 똑같이 정이 떨어지고 화가 나서 두사람의 공교로운 만남의 정작 희생자인 오목이에 대해 헤아리는 마음도 없었다。

식당안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힐끔대고 있었다。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고상한 사람들의 저급한 호기심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인재는 식당안을 한번 험악하게 째려보고 자리를 떴다。

수지가 허둥지둥 따라나오면서 말했다。

『오목인 좋은 아이야。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나무랄데 없는 아이야。자기를 일편단심 좋아한다는 걸 담박 알수 있었어。내가 정작 말하고싶은 건 그애가 고아라는 얘기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었는데…』

수지의 아직도 젖은 얼굴은 잘못을 뉘우치는 아이처럼 천진해보였다。그러나 날름대는 붉은 혀는 딴사람의 것인양 능란하고 간사했다。

『아니。네가 정작 말하고 싶은 건 나처럼 멍청한 촌놈、빈털털이는 오목인지 미스 최인지 하는 그 정체모를 고아、거짓말장이하고나 어울릴테니 잘 해보슈 하는 소리였겠지。왜 내 말이 틀렸어?』

인재는 다시한번 따귀를 때리고싶은 걸 참아내기위해 들입다 뛰다시피해서 그 자리를 피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流星의 賦 <40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⑱

조헌의 막하에 있는 장덕익이 충청감사 윤선각의 말이라면서 다음과같이 조헌에게 아뢰었다。

『감사는 어른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것을 심히 뉘우치고 있는것 같습디다。사이가 그렇게 된것은 중간에 있는 자들의 농간이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도 말했읍니다。그런데 금산의 적이 고경명이 전사한 후부터는 더욱 기고 만장하여 언제 호서와 호남을 칠지 모르는 판국에 조공(趙公)께서 북쪽으로 떠나시면 어떻게할까 하고 크게 걱정하고 있었읍니다。그래서 제게 말하길 같이 금산의 적을 친 다음 어른께서 북상하여 근왕하셔도 늦지않을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읍니다』

조헌이 가만 듣고있더니 계남에게 물었다。

『감사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듯 하온데 홍공의 생각은 어떠하오』

『감사가 진심으로 뉘우쳐 하는 말이라면 의당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금산의 적을 쳐서 호서와 호남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며 근왕도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그러나 감사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질 알 수가 없어 그것이 불안하옵니다』

계남이 이렇게 말하자

『적어도 감사의 말인데 그냥 흘려들을 수야 없지。진심으로 한 말인지 아닌지를 우선 알아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조헌이 공주로 회군하자는 영을 진중에 내렸다。

『어른께서 금산을 칠 작정이오면 제게도 전갈해 주옵소서。저도 공격의 일익을 담당하겠소이다』

『홍공、고마운 말이오。그러나 홍공의 임무는 경기도에 있소。경기도를 지키는데도 그 임무는 막중할 줄 하오。관군과 합세할 수 있게 된다면 홍공의 힘을 빌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아오。모자라면 권율장군의 조력을 빌기로 하겠소』

조헌과 홍계남은 온양 서구에서 헤어졌다。그런데그것이 그들의 처음의 만남이오、마지막의 만남이었다。

조헌이 공주로 돌아가서 윤감사를 만나자 윤감사는

『조공의 군과 관군이 합세하게 된다면 금산의 공략은 여반장일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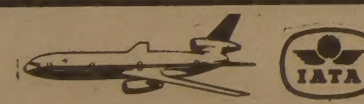
하곤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리가 합세하면 하나의 군세(軍勢)가 되는 것이 아니겠소。그런데 하나의 군세에 장(將)이 둘 있을 순 없는법인데、그리고 관군이 조공의 지휘에 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니겠소。그러하오니 부득이 조공의 군사를 관군에 편입시킴이 어떠하겠소。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아오만』

조헌은

『군이 군세를 하나로 할 것은 없지않겠소。관군은 우군(右軍)으로 하고 내 배하를 좌군(左軍)으로 하여 갈라져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며 관군과 의병의 통합을 반대했다。

그 까닭은 관군과 의병은 같이 섞어놓을 수 없는 생리와 성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의병이 관군에 편입한다는 것은 의병의 상층이 관군의 하졸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병이 그런 처사에 승복할 까닭이 없었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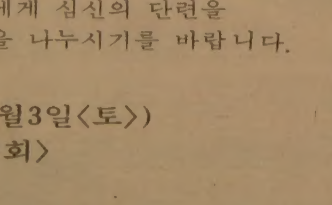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 6004
R) 293— 9970

동우야유회 및 경로잔치
<겸 임시총회>

싱그러운 여름을 맞아 바쁜일손을 잠깐멈추고 동우 전가족이 푸른초원에 모여 부모님께 위로와 자녀들에게 심신의 단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 일시 : 6월26일(토) (우천시는 7월3일<토>)
1 부, 10시~12시 <임시총회>
안건 : 회칙개정및 기타
2 부, 12시~5시 야유회및 경로잔치
1. 장소 : MORNINGSIDE PARK안 중간지점 (SCARBORO)
※중식및 바베큐용구는 각자지참
(단, 음료·불고기·통돼지는 본회에서 준비함)



동우회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디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⑯

(題字 金蘇東)

執筆을 끝내며

半平生을 映畵일에만 골몰
이루지못한일 아직 수두룩

못다한 일을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는 고독이다. 마치 황혼기에 접어든 인생처럼 나의 이력서도 황황스럽게 끝을 내야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내가 걸어온 황량한 길을 또한번 뒤돌아본다. 청운의 꿈을 안고 바다를 건너던 50년전의 일들이 한눈에 선하다. 못다한 얘기들도 많고, 이루지 못한 꿈도 그대로 남아있다.

『인생이란 미완성의 귀착지로 달려가는 것일까. 누구를 탓할 것이며 왜 주저해야 하느냐』고 나는 늘 그런 독백을 하며 살아왔다. 내가 택한 길을 쉬지 않고 줄곧 걸어왔다. 이제 황혼의 바람이 소슬한 길목에서 잠시 인생을 생각해본다.

거의 반평생을 영화교육에 몸바쳐왔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내가 좋아 뛰어든 길이니까. 50~60년대 한국영화는 온갖 고난속에서 착실히 성장해왔다. 서양의 언덕에 선 나에겐 큰위로가 아닐수없다. 장녀 善枝도 UCLA에서 영화학을 전공 내뒤를 따랐고 장남 辰雄도 역시 뉴욕 시청각교육대학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차남 秀雄은 뉴욕 맨네스음악대학을 나와 버몬트대학교수로, 시라큐스·필하머니의 일원으로, 그리고 뉴욕의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일하다 나보다 먼저 저세상으로 갔다.

1977년가을, 나는 뉴욕에서 32세로 요절한 秀雄의 遺灰를 허드슨강물에 뿌리고 왔다. 맨해턴을 스쳐흐르는 허드슨강물은 미완성으로 가버린 아들과 같이 오늘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1976년가을 정년퇴직으로 대학교문을 나와 다시 황량한 벌판으로 돌아왔다. 나 자신을 미완성으로 남겨놓은채 교수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가 엄청나게 변모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영화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아니 후퇴한것같다. 왜 영화만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영화가 활력을 되찾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정신혁명뿐이다.

영화의 발전저해요인중하나는 유교사상에서온 예술의 천시 관념이다. 「쟁이」의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굿쟁이」「광대」「딴따라」는 예술천대의 대명사다.

국력신장은 국토개발 경제발전 공업입국에만있는것은 결코아니다. 대중문화·대중예술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한 크다는것을 알아야할것이다.

그런데 행정부와 많은국민들이 영화문화에 대한관심도가 결여되어있다는것은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다. 선진국들은 국가재원으로 영화문화를 육성해온지 오래다. 구호에만 그친 문화창달에서 조용한 기대를 걸수있겠는가. 정신혁명도 미완성에 그친다면 영화의 후진성은 그대로 어둠속에서 방황할것이다.

◇1981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고。㊧로부터 차녀 美枝 3남 明雄 필자 아내。

최근의政治·經濟·文化등 발전비해 映畵만 後進性못면한 안타까움이

긴 세월을 두고 진통해왔고 현재도 그 괴로움은 여전하다.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는 세계언어인 이상 유독 한국영화만이 세계수준에서 뒤떨어져야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이런 저런일들이 회상의 길목에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

옛일들이 「나의 이력서」의 마무리와 함께 주마등같이 되살아난다. 자유당정권때는 李範奭총리 宋仁相재무장관등과 영화재건과 정책을협의했고 문교부, 문공부의 영화자문도 맡아했다. 정책청문회에서 열띤 주장도 했고 때로는 영화강연회,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학술논문등으로 우리영화육성을 위한 정신혁명에의 길을 모색해온지 어느덧 40여년이 훌쩍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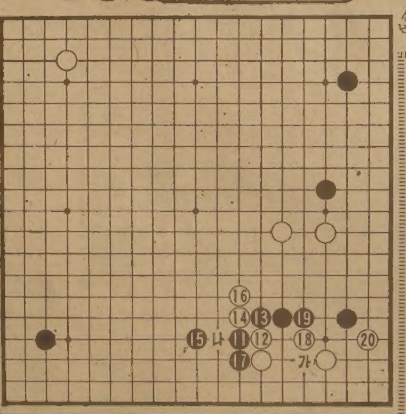
레이건 대통령이 그의 취임연설에서 「영화는 영원한것」이라고 했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영화인들이 열광했다. 감명깊은 말이다. 영화라기 보다는 예술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영화예술인을 「딴따라」로 부터 해방시킬수있는 영원한 정신개혁을 레이건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하겠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금언을 새삼 피부로 느끼면서 내자신을 또한번 반성해본다. 많은 풍상을 겪고 걸어온 지난날의 내 오솔길을 쉬지않고 또 가야하겠다. 졸문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끝】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1局 第3譜 11~20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 人) 曺薰鉉



挑戰者 투지만만

순한국식으로 댓칸쯤되는 온돌방。두툼한 방석을 2개나 깔고 그위에다 앉은뱅이 의자를 올려놓았는데 名人은 상관을 안하고 덥석앉았으나 도전자는 방석 하나를 빼버리고서도 약간 불편스럽게 몸을 주그린채 黑11을 보면서 11분이나 생각하고 白12, 14로 나와 끊어버렸다。실리에 알뜰한 도전자로서는 뜻밖의 투지였다。

해설자 趙8단도 같은느낌이었는지 『白12로는 참고도와같이 白1이하로 실리를 취하는것도 온전했다。△표2점은 黑2이하의 세력과 거리가 멀어서 대단한 공격은 받지않는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白도 여기서는 「나」로 몰아 黑11을 잡는 수단을 검토하느라고 무려 1시간10분, 이바둑 최장고시간을 기록한끝에 결연히 白16에 뻗었다。그리고 당연한 黑17에대해 白18, 20의 정석으로 일단락지었는데 문제는 19까지의 黑이 어떻게 탈출내지 수습하느냐이다。그래서 이번에는 名人이 장고를 할차례。【一凡】

期待없는「政治쇼」

내일 西方7國 베르사유經濟對坐

뉴스診斷 外信部 林鍾乾기자

7개 부자나라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日本) 대표들이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의 유서깊고 호화롭기로 이름난 베르사유宮에서 함께 만난다.

지난75년 프랑스 람부예에서 처음 열렸던 선진7개국 경제정상회의가 매년 한차례씩 회원국을 돌아가며 열린 끝에 원래의 출발지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제2라운드에 접어든 서방경제정상회의는 「자유경제체제의강화를 통한 서방국가의 결속과 단합」이라는 람부예정신을 재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讀經을 외우듯 매년회의때마다 되풀이돼온「결속강조」는 이번회의에서 더욱그度를 질제할것이다. 분열과 대립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79년이후 4년째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여름 캐나다의 오타와회의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캐나다등의 경제상태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미국과 일본경제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플레는 한고비를 넘겼으나 失業은 날로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회원 선진국의 실업자수가 2천8백만명에 이르러 戰後 최악을 기록하고있다.

OECD는 올해 회원국가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에 훨씬못미치는 0.3%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제통화 기금(IMF)은 서방경제정상7국의올해 실업률을 지난해의 6.6%보다 1%포인트 증가한 7.6%로 예측하고 있다.

곳간이 비면 싸움이 잦은 법이듯 살림이 궁핍해진 부자나라들의 살아남기위한 이해다툼이 이번회의를 통해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脫不況의 돌파구를 찾는다는주제는 뒷전으로 밀린채 美辭麗句만이 범람하는 정치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서로 못살게된 책임을 떠넘기려는 소리가 요란할 것이고, 그 모습은 마치 「마녀사냥」을 연상케 할것이란 예측이다.

베르사유경제정상회의에서 일본과 미국은 피고석에 앉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는 지난해 오타와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두나라란는 나머지 5개국보다 그래도 형편이 나은편이고, 다른 5개국은 이 두나라가 그들의 희생위에 기를 펴고 있는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와 일본의 수출공세는 다른 5개국으로부터 十字포화를 맞을것이다. 화살을 하나라도 덜맞기 위해서는 피고측인 미국과 일본도서로의경제정책을비난해야할 필요를느낄것이다.

◇미국의 高금리

미국을 제외한 6개국대표들은 서방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 원흉이 미국의 고금리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해 오타와회의에서 레이건美 대통령은 이같은 서방국들의 집중포화에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인플레는 80년 13.5%, 81년9%에서 최근 7%수준으로 가라앉았고, 지난해 20%에 이르렀던 미국금리가 최근 16%선으로 떨어졌지만 유럽국가들은 16%수준으로는 도저히 만족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달러화의 금리가 높아지면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돼 달러의 강세를 가져오며 달러로 석유값을 치러야하는 다른나라 국가들에게 油價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미국의 고금리에 대처하기위해 다른나라들도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어 고금리를 세계로 확산시켰으며, 기업들이 금리부담을 두려워해 투자를 기피, 불황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은 인플레로 인한 달러가치의 하락은 고금리보다 더큰 해악을 세계에 미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인플레억제 정책에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공세

일본정부는지난달28일 TV냉장고등 모두 96개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청어·돼지고기등 4개품목을 수입화대품목으로 추가하는등 시장개방정책을 발표했다.

◆지난1월말 영국의 스탠더드紙는 1면에 「失業者3백만명」이라는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있다。(사진) 선진24개국의 실업자만도 3천만명에 이르고있다。이 실업사태의 원흉이 미국의 고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는 유럽국가들은 이번 베르사유경제정상회의에서도 이문제로 미국을 집중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AP】

脫不況 뒷전…責任미루기 급급
美高金利·日수출로 攻防예상
美·유럽 對蘇정책 異見, 포클랜드事態도 장애

베르사유회의에서 서방측의 공격을 다소라도 모면해보려는 속셈인것은 두말할 나위가없다.

일본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수출정책으로 지난해 歐共市(EEC)국가들의 對日무역적자는 1백20억달러에 이르렀다.

문제는 일본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자국시장의 문호를 걸어잠근채 남의나라에만 물건을 팔기에 혈안이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對日무역적자폭에서도 이미 여실히증명된바있다.

일본이 이번에 내놓은 시장개방정책이라는것도 사실상 그들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상품에 국한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서방국가들을 무마시키기에는 미약하다는 평가들이다.

『일본은 失業을 수출하고 있다』는 서방국가의목청은 그어느때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美蘇관계

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며 소련과의 힘의 대결을 추구해왔다.

미국정부는 소련과의 군사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또 유럽에의 核배치를 들고나와 전서방국가에反核열기를 몰아왔다. 특히 反核무드는 오히려 국제여론에서 소련의 입장을 강화하는 반작용을 가져왔다. 레이건 대통령은 서방국가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의식, 對蘇자세에 유연성을 보이는 제스처로 對蘇 군축협상 재개및 美蘇 정상회담 개최등을 제의했다.

물론 아프간주둔 소련군의철수, 폴란드억압중단등 對蘇비난을 멈춘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이두 사태와관련, 서방동맹국들이 미국과 對蘇정책을 같이해야한다는소위 「連繫이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않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레이건 대통령의 태도변화가 프랑스 르·몽드紙의 지적처럼 그의 「知的유연성」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번 회의의 촛점이 될것이다.

對蘇정책에서 미국과 유럽측이 불협화음을 빚고있는 또하나의분야가 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개발을 둘러싸고 유럽및 일본측이 소련에대해 기술및 자금을 지원하려고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련을 돕는 利敵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반해 서독과 프랑스를 주축으로한 유럽측은 값싼에너지를얻기위한 苦肉策이라고 맞서고있다. 유럽측은 될수록 레이건 대통령의 對蘇강경자세를 누그러뜨려 對蘇정책에있어서 政經분리원칙을 추구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EEC 분열

포클랜드전쟁은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분쟁중재능력에 한계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EEC국가간에 짙은 不信의 먹구름을 드리웠다.

포클랜드분쟁이 터진후인 4월17일 EEC국가들이 對아르헨티나 경제제재를 결의했을때 영국의 더·타임즈紙는 사설에서 『이 불행한 전쟁은 그러나 다행히도 유럽의 단결을 가져왔다』고 찬양했다. 그러나 한달후 이제재조치를 1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영국측의 요청은 이탈리아·아일랜드등의 반대속에 1주일연장으로 그쳤고, 곧이어 영국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개 회원국들이 EEC농산물가격을 10%인상, 만장일치 의결방식의 오랜 전통을 깨버렸다. 이에 대해 영국의회에서는 『영국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당장 EEC를 탈퇴하라는 소리가 드높았고 영국언론들도 이사건을 『EEC창설이후최대분열위기』라고보도했다.

영국은 전쟁을 치르고있는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지는 않았으나 언젠가 EEC내에서 터지고야말 不信의 화근을 남긴것이다.

◇南北문제

매회마다 폐막공동성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문제가 바로 南北문제이다. 그러나 사실은 구색을 갖춘다는 표현이 어울릴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왔다. 부자나라(北)들이 제앞을 가리기에도 급급해졌다는 핑계로 貧國(南)에대해 얼마나무관심한가를 말해주는 예로 1차산품공동기금설치문제를 들수있다. 76년 런던회의때 공동선언및 부속문서에서 적극적인 이기금설립추진을 합의한바 있으나 4년에 걸친 교섭끝에 80년에 와서야 설립협정이 채택됐고 협정대로라면 금년3월부터 발효됐어야함에도 발효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29개국만이 협정에 비준하고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아마 협정의 발효시기의 연기를 논의하는 것이 고작일 것으로 보인다.

7개선진국 정상회의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과거 어느때보다도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에 과거 어느 개최장소보다도 화려한 베르사유宮에서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것자체가 어쩌면 아이러니다.

회의기간은 3일이지만 시간으로는 23시간。이중 절반정도는對蘇정책을 주로한 정치토의에 허비하게 될것이 분명해 이번 경제정상회의는 政經정상회의로 변색될 전망이다.

이번회의에서는 국제외교 무대에 본격데뷔하는 레이건美 대통령의 활약과 사회주의자 대통령으로서 처음 회의를 주재하게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수완이 기대된다.

레이건 대통령은 인플레퇴치파인데 반해 미테랑 대통령은 경기부양파이고 또 레이건 대통령이 부자의 논리를 전개하는 반면 미테랑은 貧者의 옹호자임을 자처하고 있어 두사람의 이론 대결도 볼만할듯하다.

◇지난해 7월 오타와회의때의 선진7개국정상들。(右로부터 스파돌리니 이탈리아수상, 대처영국수상, 미테랑프랑스대통령, 트뤼도캐나다수상, 한사람건너 레이건美대통령, 슈미트서독수상, 스즈끼日本수상)

各國의 기본입장

佛 美 제3세계문제 해결방식에 불만
獨 對蘇기술·금융지원은 계속 추진
英 美지지하나 高金利 인하등 압력
加 미국의 對蘇무역 제한요구 비난
日 美비난 유럽편들어 화살 피할듯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는 베르사유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수뇌들의 기본자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개최국대표이자 회의의장으로서 중재자역할을 맡게될것이다. 동맹국끼리의 경제전쟁은 아무도 원치않을뿐 아니라 또 치를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레이건 대통령이 세계문제 특히 제3세계문제를 美·蘇대결의 차원에서 다루고있는 점을 못마땅히 생각해왔기 때문에 레이건의 이같은 태도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에 위협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슈미트 서독수상＝세계경제의 질병을 치료하기위해 미국이 고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자신의 처방을 탐탁찮게 여기고 있는 레이건행정부를 나무랄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성공적인 인플레억제책은 미국의 高物價에 대한 그의 비난을 침묵시켰지만 이제 그는 미국의 대폭적인 재정적자를 경고할 것이다. 소련에 대한 기술및 금융지원은 그것이 원조가 아니라 수출지원을 위한 정부보조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계속 추진할 듯.

▲대처영국수상＝포클랜드분쟁에서 미국이 영국편을 들어준 것에 대한 보답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지난4월중 영국의 인플레율은 9.4%로 다소 떨어졌지만 실업률은 12%를 맴돌고있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고금리인하, 재정적자감축요구에는 보조를 같이 할것이다.

▲스파돌리니 이탈리아수상＝다른유럽국가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트뤼도 캐나다수상＝미국의 對蘇무역제한요구를 비난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소련과의 보다 밀접한 경제·문화적유대 관계가 東西긴장완화에 도움이될 것으로 보고있다.

▲스즈끼 日本수상＝자신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공격을 막는 일이 가장 큰 과제가될 것이다. 레이건행정부가 인플레억제에 성공을 거둔것으로 평가된 마당이라 작년처럼 미국과함께 공동의 공격목표가 될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미국의 재정적자가 일본및 서구의 방위부담에서 기인된 것인만큼 이역시 일본으로서는 할말이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난하는 유럽편을 들어 공격을 모면해보려는 눈치작전을 펼것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詩壇

바람과 少女와하느님

柳齊夏

바람은 늘 북창 어귀에 걸려 있다。클레와 裸婦는 내 시야에 걸려 있다。아무도 이 타는 화폭을 복사하지는 못한다。

明洞쯤서 펄럭일 그 소녀의 살찍과 그 살찍에 묻어 있는 햇살 하나 떼내도 소녀의 그 풍성한 꿈은 금 하나 가지 않는다。

유다의 손목까지도 잡아주는 봄바람。몇천년 곱씹어 보풀러 스러져도 하느님、당신 마을엔 당신밖에 없네。

바람은 또 이따금 세종로엘 어정댄다。고장 난 시계도 기웃대다 웃는다。하느님、클레와 내 少女도 그걸 봤을까。

주5일
식품점에 신문배달

식품점에 가시면

⊙새로나온 〈한국일보〉가 있읍니다.
⊙아내에의 선물〈주간여성〉도있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토론토 부근 10개 한국식품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매일 배달, 판매합니다.(단 : 미시사가소재 식품점에는 당분간월·수·금요일만 배달)

—한국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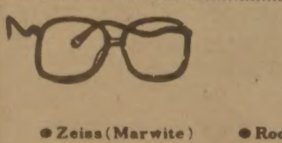
털코-트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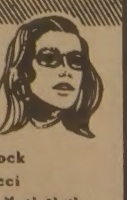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피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앞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종합보험

김흥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深夜 세母女 무참히被殺

強盜위장 怨恨살인 추정

도끼로, 長男 중상… 面識犯인듯

서울 冷泉洞

3일 새벽2시께 서울西大門區 冷泉洞65의1 李鍾壽씨(42·요정주인)집에서 李씨의부인 李君子씨(40)와 장녀 恩愛양(15·培花여중3년) 차녀 秀娟양(3) 장남 洪垂군(9·경기국교3년)등 일가족 4명이 도끼로 보이는 둔기로 마구 맞아 세모녀는 숨지고 장남은 중태에 빠져있는것을 이날새벽 귀가한 李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가해숫법이 잔인하고 ▲3살난 秀娟양까지 죽였으며 ▲숨진 부인李씨가 반항한 흔적이 없고 ▲안방 장롱서랍을뒤져 일제캐논카메라2대 (싯가15만원상당)를 훔쳐갔으나 같은 장롱에 있던 현금2백여만원은 그대로 놓아둔점등으로 미루어 강도살인을 위장한 면식범에 의한 원한살인으로보고 수사중이다.

料亭주인 男便 새벽2시 歸家 발견

현관문 열린채 電話·인터폰線 절단

수사에나선 경찰은 이웃목격자들의 진술과 면식범일것이라는 추정에따라 李씨의가까운 인척인 전과자 李모씨(35·추거부정)를 유력한 용의자로 좇는한편 李씨의사업관계, 주변인물등을 중심으로 단순강도살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펴고있다.

◇발견 李씨는 이날 새벽2시께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鍾路區堅志洞85의18 요정「양전」에서 택시를타고 집에도착, 평소처럼 대문벨을 눌렀으나 소식이없자 담을 넘어들어가 사고현장을 발견했다.

발견당시 현관문은 열려있었고 부인李씨는 평소 기거하지않는 피아노방에 머리와 얼굴, 왼팔등 10여군데가 도끼비슷한 흉기로찍혀 무참히 살해된채 치마와 목없는T셔츠차림으로 엎드려 베개를 베고 숨져있었다.

또 장녀 恩愛양과 차녀 秀娟양은 피아노방과 마주보이는 공부방에 머리를 대문쪽으로 두고 역시 흉기로 머리등을 맞고 잠옷차림으로 숨져있었다.

한편 장남 洪垂군도 머리등을 찍혀 내실한가운데 이불위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서울西大門 赤十字병원으로 옮겨 치료를받은 洪垂군은 이날하오에야 의식을 되찾았다.

사고당시로 추정되는 밤11시께 2층에는 세든 金昌浩씨(30·의류상) 가족등 6명이 TV를 보고있었으나 별다른소리를 듣지못했고 쿵하는소리만 났었다는것.

벼락부자 소리들어

◇李씨주변 전남 寶城郡 筏橋가 고향인 李씨는 고향에서 국교를 졸업, 22살때 단신 상경, 술집살롱의「화장실장」으로 출발, 西大門區 B요정, 漢南洞 H요정등에서 종업원과 지배인등으로 일해왔다.

李씨는 지난해 4월7일친구 金寧鎬씨(35·서울 麻浦區 下水洞2의13)와 공동투자, 「양전」이란 요정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으로 세내 남자종업원14명과 호스티스 40여명을 두고 개업했다.

「벼락부자」라고 동네에서 소문이난 李씨는 10년전부터 이집에 살면서 79년 집을 새로지었는데 싯가 5천만원을 호가한다.

李씨는 최근 서울鍾路區益善洞에 대지33평의 한옥도 5천4백만원에 샀는데 동업자인 金씨와 공동명의로 등기돼있다.

숨진 부인李씨는 평소 서민적이었다는게 동네 사람들의 평이다.

李씨는 15년전 당시 모회사 경리사원이었던李씨와 결혼, 단란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도 안짖었다"

運動靴신은 곱슬머리 30代추적

◇현장 면장갑1짝 발견 李씨집은 막다른 골목집으로 비교적 부유한 편。공부방, 안방, 피아노방등이 있는 1층에는 마루에 소파가 놓여있었고 소파탁자위에는 금방 깎아먹은 듯한 배껍질이 놓여있었다.

또 현관에 이르는 계단에는 운동화족적 3~4개가 나있어 범인은 숨진 李씨가 열어준 현관을 통해 들어간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가족이 숨져있던 각방은 피로 얼룩져있었으나 범인은 핏자국을 옷가지등으로 닦은것 같았다. 공부방옆 화장실에는 범인이 피를 닦는데 쓴 부인李씨의 분홍색 내의, 어린이용 T셔츠2장등 옷가지와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면장갑 한짝이 버려져 있었다.

또 마루와 연결된 전화선과 인터폰선은 뜯겨 헝클어져 있었다.

현금과 패물들이 든 안방 장롱서랍은 철저히 뒤지지않은듯 별로 흐트러지지 않았다.

◇세살 아기까지 단란했던 李씨일가족。부인 李씨, 장녀 恩愛양과 아버지팔에 안긴 秀娟양등 3명이 숨지고 장남 洪垂군은 중태에 빠졌다。

2층셋방선 낌새못채

카메라2대盜難…핏자국닦고 유유히

◇피살 현관에 운동화足跡 서울西大門경찰서 天然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李씨가족을 잘아는면식범이 강도살인을 가장, 원한살인을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이 이처럼 보는이유는 단독범으로 추정되는 범인이 ▲현관이외에 침입흔적이 없어 안에서 열어준 빗살대문과 현관문을통해 집안으로들어간것으로 보이며 ▲사고당시 2층방에있던 金씨등 6명이 이렇다할 소리를 듣지못했고▲시체마다 철저하게 머리와 목, 얼굴부분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했으며▲최근 6마리의 새끼를낳아신경이 예민해진 개가 짖는소리를 들은사람이 없었다는점등이다.

또 소파탁자위에 있는 배껍질로 미루어 대접을 받은것이 확실해 면식범인것으로 단정하고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李씨집에서 50m떨어진 冷泉세탁소주인 梁鍾喆씨(43)로부터 전날밤 11시께 1백65㎝가량의 작은키에 운동화를 신은 고수머리 30대가 골목길로 들어왔다가 돌아간사실을 확인하고 李씨집 현관계단에서 운동화족적을 발견, 李씨가 침입했던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의하면 남편 李씨의 인척인 전과자 李씨는 李씨집에 자주 찾아와『돈을달란』며 행패를 부려왔으며 2~3개월전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심하게 맞은 적이 있었다.

李씨는 일정한직업이나 주거지도없이 떠돌아다니며 인상마저 험악해 평소 친척대우를 받지못해왔다는것.

한편 경찰은 단순강도살인 사건일 가능성에 대비, 주변 불량배와 동일숫법전과자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있다.

의식을회복한 洪垂군은『전날밤10시께 누나등 3자매가 공부방에서 잠들었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병원으로 옮긴 사실외에는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洪垂군이 완전히 깨어나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수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참혹 李씨의장녀 恩愛양과 차녀 秀娟양이 숨진 공부방。이들의 베개에도 핏자국이 엉겨붙어있다。

錢主등 28명 指名수배

李·張사건 刑事합의11부配當…1명은 自首

李哲熙·張玲子부부의 거액어음사기사건의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형사지법은 3일 이사건을 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사건 관련피고인 29명의 밀접한 상호연관성때문에 한재판부에서 병합심리토록 한것이다.

이들 피고인가운데 李·張부부는 文相翼변호사를 선임했으며 李圭光씨는 金正琪변호사, 共榮토건간부들은 金一와변호사, 사채업자 郭慶培씨는 許享九변호사, 그외의 사채업자들은 金公植·安東洙·申慶植변호사, 林在琇씨를 제외한 조흥은행간부들은 朱雲化·黃石淵·林采洪변호사, 張여인의 첫남편 金守哲씨는 鄒台求변호사, 日新제강간부들은 趙鉉一변호사를 각각선임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금명간 변호인을 선임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李·張부부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일 李·張부부에게 6천4백4억원의 어음을 할인해주고 커미션을 받고 은행에 1천8백1억원을 예치시켜준 사채중개인과 전주등 사채업자29명의 명단과 계보를공개하고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이가운데 李·張부부에게 36억9천만원의 예금을 유치해준혐의로 수배를받아온 사채업자 성병일씨가 3일상오 검찰에 자진출두, 자수했다.

성씨는 검찰에서 자신의자금조성액이 6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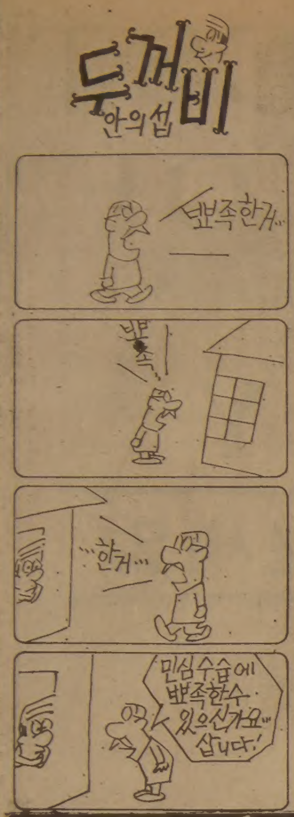
수배된 사채업자들과 혐의내용은 다음과같다.

◇어음할인

▲黃赫老(49·서울江南區道谷洞 개나리아파트35동 303호)=81년2월부터 3월사이에 약속어음 1천3백36억원의 할인의뢰를받고 이자2백26억원을 공제한 1천1백10억원교부▲金永哲(35·서울江南區鶴洞山51)=81년2월부터 82년4월사이에 전주겸 중개인 田永采(구속중)를통해 약속어음 2천5백86억원을 할인의뢰받고 이자3백37억원을 공제한 2천2백49억원교부。▲白樂亨(29·서울江南區論峴洞155의4)=82년1월부터 4월사이에 사채업자張東浩(구속중)로부터약속어음 3백60억원을 할인교부(이하 할인기간과 중개인張東浩는 동일)▲김종혁=21억원▲심대철=15억원▲성명불상(한일사경영)=14억원▲최익봉=12억원 ▲박정선=11억원▲이귀숙(서울江南區方背洞)=9억5천만원▲박만수=9억원▲서차곤=9억원▲정덕수=6억원▲허백=6억원▲유길상=6억원▲최병조=6억원▲전명식=6억원

◇은행예치금 조성자

▲이귀숙(서울江南區方背洞)=81년10월부터82년4월사이에사채업자張東浩의의뢰를받고 1백93억2천만원의자금조성(이하기간과 의뢰인 張東浩는 동일)▲尹成燮(서울西大門區延禧2洞)=87억5천만원▲이규창(서울中區母岳洞)=65억7천만원▲小公洞 아줌마=49억7천만원 ▲미스진=48억2천만원▲최정순=41억5천만원▲승병일(서울江南區三成洞)=36억9천만원▲이계휘(서울鍾路區靑雲洞)=34억원▲이석규(서울銅雀區舍堂洞)=32억7천5백만원 ▲서차곤=30억3천만원 ▲허백=26억9천만원▲임순재=24억5천만원▲김전무(전삼보증권)=23억7천만원▲고복수=21억5백만원▲미스박=81년10월부터 82년4월사이에 사채업자 趙祥弼의 의뢰를받고 20억1천만원의자금조성。▲성명불상=81년10월부터82년4월까지사이에 사채업자 張東浩의 의뢰를받고 50억원의자금조성、같은기간동안사채업자 韓洪洙의 의뢰를받고 80억원의 자금조성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4歲男兒 실종 1週

安養 집앞서 40代女人에 유괴된듯

◇유괴된 台熙군

경기安養市冠陽洞552의26 강남연립나동 201호 鄭相元씨(30·회사원)의 장남 台熙군(4)이 지난달27일하오6시께 40대 여인에게유괴당한후 1주일이 넘도록돌아오지않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鄭씨에 의하면 台熙군은집에서 20여m떨어진 冠陽중학교옆 공터에서 놀다가 작은키에 걸인행색을하고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40대여인이데리고 갔다는것.

경찰은 台熙군으로 보이는 소년이 육교, 지하도, 전철역및 차안에서 구걸행위를하는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진술에따라 유괴해간 여인을찾고있다.

공든塔

한국紅一點 우체국장 朴善德씨

철저한 人生… 遞信27년의「女子上官」

서울貞陵 우체국장 朴善德씨(48·사진)는 우리나라 유일의 여성 우체국장。직급으로 따지면야 평범한 主事職에 불과하지만 朴국장 개인도「평범하다」고 생각 했다가는 큰코 다친다. 그녀는 전형적인 여성。여장부의 한사람이며 그녀의 자리는 27년간의 공무원 생활의 부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남녀 불평등의 여건속에서 억세게 쌓아올린「공든塔」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자들과 대등하게 겨루는 전형을 통해 체신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자이기때문에 진급에있어 남자보다 뒤졌었고 겨우 계장자리를 쟁취해내 어느 우체국에 부임했을때「못난 남자」직원들이 여자上司를 못받들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또다른 차별대우를 받았다. 하긴 그것이 유익한 경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뒤부터 남자의 동정을 받거나「직장의 꽃」으로 취급되는걸 그녀는 철저하게 거부하기 시작했던것.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도 생활을위해 일할수있으며 또 조직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사회에 봉사할수있다는 걸 조그맣게나마 증명하고 있었다.

35세의 晩婚에도 그녀는 혼기를 놓쳤다는 생각을 추호도 한적이 없다. 새벽5시반에 일어나 3남매의 등교치닥거리를 해주고 8시부터 오7시까지는 일에만 몰두한다。그녀는 여자로서 직업인은 남자보다 두배는 더 일해야하는 외에 여자로서의 섬세함까지 살려야 다른 남자동료와 겨우 대등한 취급을 받는다는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또 실천했다. 꽃꽂이를 배워서 직장분위기를 다듬고 귀가하면 억척주부로 변신한다.

그녀가 27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얻은 결론은 여성직장인끼리 서로 헐뜯으면 손해라는 사실。결국 직장여성의 역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이다.『여자라고 남성직장인들이 보호해줄때 쉽게 기대려드는 직장여성때문에 직장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그녀는 따끔하게 꼬집는다.

그녀는 산유휴가 4개월밖에 쉬어본적이 없다. 하루 5시간 잠자는 것을 빼면 1등 주부와 1등 우체국장으로서의 직무에 철저한 인생을 산다.

그녀는 기계적 남녀평등을 외치는 맹렬여성운동가가 아니다. 그저 남자와 어깨를 맞대고「보이지않는 불평등」을 하나씩 쳐부숴가는 생활속의 투사다. 그런 그녀를 다만「여자우체국장」이란는 특이성때문에 만났던 기자가 오히려 쑥스러워졌다. 【徐蕙淑 기자】

趙名人·小林9단 本因坊 2局시작

【東京3日=聯】제37기 本因坊(每日신문주최) 도전7번승부 제2국이 3일 후꾸오까(福岡)현 지꾸시노(筑紫野)시에서 趙治勳本因坊·名人과 도전자 고바야시(小林光一) 9단사이에 시작됐다.

2일간 계속될 이번대국의 결과는 4일하오 늦게야 나올것으로 보인다.

趙本因坊·名人은 지난달27일 가나가와(神奈川)현 하꼬네(箱根)에서열린 제1국에서 고바야시에게 1백26수만에 불계패당한바있다.

仁荷師大부중 부정編入學

【仁川】仁荷大사범대학부속중학교가 고교입학연합고사에 떨어진 D중학교졸업생6명을 부정편입학시킨 사실이 仁川시교위의 감사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3일 仁川시교위에 따르면 仁荷사대부중은 지난3월 신학기부터 고교입학 연합고사에 낙방한 시내D중학교졸업생 金모군(15)등 6명을본교3학년5반에 부정편입학시킨후 학적부에 기재도 하지않은채 재학생과함께 수업을 받도록 했다는것.

학교측은 또 시교위에서 장학지도를 나올경우 수업시간도중에 이들 학생들은 빼돌리며 책·걸상까지 치워버리고 부정사실을 숨겨왔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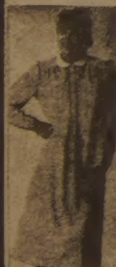
이에따라 시교위는 仁荷大사대부중 교장 裵晃圭씨(55)등 관련교직원4명을 2개월감봉내지 견책처분했다.

시교위는 또 이들 학생들이 이학교의 金모교사의 소개로 부정편입학할때 기부금형식으로 학교측에 돈을 주었다는 정보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聯】

오토바이 過速충돌 20代2명 숨져

【光州】3일 상오11시께 전남求禮郡求禮邑鳳南里앞 국도상에서 90cc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던 宋成錫씨(25·전남求禮郡求禮邑鳳西里)가 커브길을 돌다가 길옆 사자탑에 부딪쳐 뒤에 타고있던 한마을 朴濟哲씨(26)와 함께 그자리에서 숨졌다.【聯】

Maxi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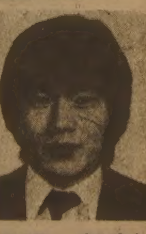


ㅇ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쌧손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ㅁ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9시~오후5시)
147 Spadina Ave. #200 (2층)
☎ : 596-1413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MINILAB
◎당신은 6만불 미만으로 매일 3~400명 손님을 대하는 MINILAB의 모든 프린팅 프로세싱 장비를 구입할수 있읍니다. 아래주소로 1차 왕림해 주십시요.
일자 : 6월8일, 9일
주소 : 20 Apex Rd. (로렌스×더프린)
전화 : 789-4586
(재정적인 계획을 의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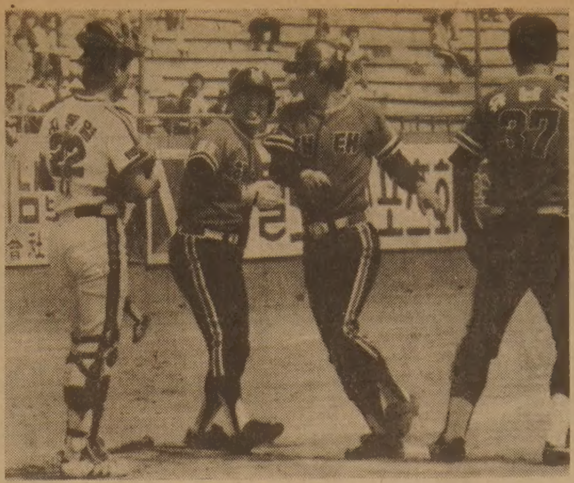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또 9회말 4대4 延長戰

해태、12회초 롯데잡아 6-5



◇해태—롯데대전 2회초 1死후 해태의6번 金鍾模가 좌월투런 홈런을 날리고 홈인、나인의 환영을 받고있다。【釜山=聯合】

프로야구

프로야구의 제과라이벌 해태·타이거스와 롯데·자이안트는 3일 九德경기장에서 벌어진 4차전에서 2번의타이、1차례의 역전을 이루는 접전을 벌이며 연장10회까지 4-4로 승부를 가리지못한 가운데 연장11회에 들어갔다。

해태는 2회초 포볼로나간 金奉淵을 1루에두고 1死후 6번 金鍾模가 롯데선발 盧相守를 강타、선제 2점 호머를 날렸으며 7회초 연속2루타로 3-3의 동점을、8회초 金奉淵의 솔로호머로 롯데 에이스 盧相守를 다운시키며 또다시 4-4의 동점을 만들었다。

롯데는 해태선발 李相潤의 난조를틈타 3회말2死후 연속포볼과 5번지명타자 金容哲의 좌월2루타로 3-2의 역전리드를 잡았으며 7회말 2死후 4번 金用熙의 2루타로 4-3의 리드를지켜갔다。

MBC靑龍은 2일밤 서울운동장에서 2회말 柳承安의 선제 솔로호머와 6회말 집중3안타로 롯데·자이안트를 4-2로 제압、15승13패로 2위의 三星·라이온즈에 2게임차로 다가섰다。

◇3일전적

◆부산

해태 020 000 110

롯데 012 000 100

〈연장11회·하오7시현재〉

▲홈런=金鍾模(2회·2점) 金奉淵(8회·이상해태)

◇2일전적

▲서울

롯데 000 020 000 2

MBC 011 002 00× 4

▲홈런=柳承安(2회·MBC)

李應斗회장辭表 수리可決

力道연맹、安昌億·金鍾勳이사 資格박탈

대한 역도연맹 임시대의원총회는 李應斗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집행부 구성을위한 5인전형위원을선출했다。

3일 대한체육회 10층강당에서 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서 대의원들이 임시 의장 선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벌이자 李應斗회장이 돌연사표를 제출했다。대의원 총회는 仁川대의원 金允昌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李應斗회장의 사표수리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13대1로 사표가 수리됐다。이날 대의원총회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安昌億·金鍾勳이사의 자격을 박탈했다。

1校1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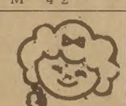
李체육장관 報告

체육부는 학교체육을 크게 강화하고 스포츠과학연구소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李源京체육부장관은 2일 국회올림픽특별위원회에서의 보고를통해 학교체육의 강화를 위해 1校1技운동의 적극추진외에도 학교간 경기의 장려、시·도학교체육대회개최와 우수선수에대한 장학금 대폭증액、체육특기자에 대해 중·고교는 입학정원의 3%이내、그리고 대학교는 총·학장의 재량으로 하여 진학기회를 크게 확대하겠다고말했다。

그는 또 체육중·고교를지역별로 증설、정책종목의우수선수를 집중육성하며 교육재정교부금중 체육시설보조금의 비율을 높여 학교 체육시설을 확충토록하되 체육특기자의 정규수업 이탈등은 엄중히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밖에도 스포츠의 과학화를위해 올해5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들여 스포츠적성측정을위한 이동차량구입등 스포츠과학기자재를 도입하고 국민학교에서부터 체력을 기입한 기록부를 직장까지연결、운영하는 국민체력장제도의 도입도 연구검토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국、伊에 逆轉勝

프랑스 國際여자농구 朴良桂기용… 主導權

제1회 프랑스국제여자농구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농구 대표팀은 이탈리아와의 첫경기서 71-64로 이겼다고 3일 협회에 알려왔다。이 대회는 6개팀이 참가、3개팀이 A·B조로 나뉘어 열리는데 한국은 불가리아·이탈리아와함께 B조에속해있다。프랑스、쿠바、스페인은 A조에 속해있다。

이날한국은 초반 이탈리아에 리드당했으나 朴良桂를 기용하면서 게임의주도권을 장악하고 朴鎭淑의슛으로 20-18、첫 역전리드를잡은후 朴贊淑의 어시스트、金和順의 드라이브·인으로 승리했다。

◇첫날전적

▲B조

한국 71 (20-34 51-30) 64 이탈리아

▲A조

프랑스 73 (33-40 40-28) 68 쿠바

西獨축구皇帝의 退位

베켄바워、발터-젤러와함께 名譽主將으로

◇西獨의 「축구황제」 프란츠·베켄바워선수(왼쪽으로부터 두번째)가 현역은퇴 고별경기에앞서 왕년의 명선수 프리츠·발터(중앙)우베·젤러와함께 관중들에게 손을흔들어보이고있다。이들3명은 西獨대표축구팀의 명예주장으로 뽑혔다。【함부르크(西獨) 2日AP=聯合】

和·印대표팀등 가벼운 워밍업

대통령金杯축구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개막 이틀을 앞둔 3일 한국대표팀과 네덜란드의 PSV아인트호벤、할렐루야팀、印度대표팀등 4개팀은 마무리 전력 점검에 들어갔다。

2일하오 내한한 PSV는 許丁茂등 선수전원이 리브렉츠 트레이너 지도아래 상오10시반부터 제3한강교옆 체육공원에서 40분간 가벼운 유연체조로 몸을 풀었다。

한국대표팀은 하오3시 元堂 農協대학구장에서 企銀팀과 연습경기를 벌였고、할렐루야는 하오2시 鷺梁津 서울信託銀구장에서 팀웍을 쌓았다。

또 印度팀은 하오5시부터 板橋 道路公社구장에서、컨디션을 조절했다。

제3한강교 체육공원에서 몸을 푼 PSV선수들은 처음 크게 실망했다。잔디가아닌 잡초구장에다가 울퉁불퉁까지해 볼을 갖고 본격적인 전술훈련을 벌일수없었고 탈의실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 축구장은 모두 이렇게 좋으냐』고 PSV의한 선수가 許丁茂에게 질문、許의 얼굴이 잠시 붉어졌다。

PSV의 스타팅멤버는 내한도중 파리에서 벤피카와친선경기(3-1승)를 할때 멤버가 그대로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GK한스·세갈、FB베리 빌트스커트、슈테벤스、브란츠、HB포르트브리트、許丁茂、포·로코프、FW레네·케르코프、토레센、겔스동으로 부상중인 GK되스블루크、HB윌리·겔코프를 제외하고는 전원 주전멤버다。이중 GK와 로코프、베리는신예다。

李承勳 잡겠다

핀토르 큰소리

【로스앤젤레스 1日AP=聯合】 프로복싱 WBC(세계권투평의회) 밴텀급 챔피언인 멕시코의 강타자 루페·핀토르는 4일(한국시간) 벌어지는 한국의 도전자 李承勳과의 타이틀전에서 승리할것으로 낙관하고있다。

챔피언 핀토르는 WBC슈퍼·밴텀급챔피언인 윌프레도·고메즈(푸에르토리코)와의 다음 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윈드서퍼 權熙鳳씨

도버海峽횡단 성공

윈드서퍼 權熙凡씨는 2일(현지시간)도버해협횡단2차도전에서 4시간19분의기록으로횡단에성공했다。

權씨는 이날하오 2시32분 프랑스 캡·그리네해안을 출발、하오 6시51분에 英國의 히드·부이해안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윈드서핑으로 도버해협을 횡단한사람은 權씨를 포함、4명이다。

최고기록 보유자는 프랑스의 롯서니로 1시간39분만에 도버해협을 횡단했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
가지신 분 ——

"한 국 일 보"

(THE KOREA TIMES TORONTO) 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요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 월 $9, 6개월 $50, 연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 화 : (416)533-2361

보내실 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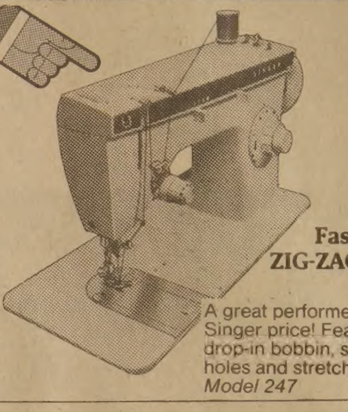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 전화 ....
크레딧·카드 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THE BIGGEST SAVINGS OF SINGER HISTORY

싱거 재봉틀 특별세일

기간 : 6월 15일 까지

SAVE $50 ON SINGER*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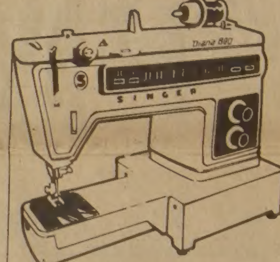
SALE $119.95

REG. $169.95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Features front drop-in bobbin, sews buttonholes and stretch fabrics.
Model 247

SAVE $200 ON SINGER ELECTRONIC 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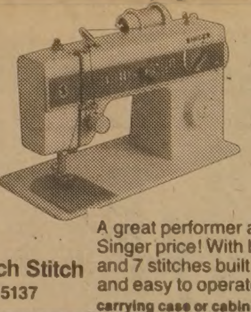
TOUCH-TRONIC MODEL 860

This Canadian-made Touch-Tronic machine also provides push-button selection of 14 stitch patterns, built-in buttonholer, twin needle sewing, automatic pattern start and many other features for smooth, easy sewing.

SALE $499.95

REG. $699.95

SAVE $120 ON SINGER 5137



Stretch Stitch
Model 5137

A great performer at a great Singer price! With buttonholer and 7 stitches built in; lightweight and easy to operate.
carrying case or cabinet not included

SALE $169.95

REG. $289.95

SAVE $90 ON SINGER 496

- Portable design makes this machine easy to carry and store but still gives you "big" machine capability.
- Free Arm makes sewing hard-to-reach places extra easy.
- Sew faster and smoother with electronic needle control.

SALE $299.95

REG. $389.95

※어떤 종류의 재봉틀이든
고칠 수 있읍니다.

SINGER

HURRY! This is your last week to save!

EAST
SINGER CENTRE
GERRARD SQUARE
1000 GERRARD ST. E
(& PAPE)
☎ : 461-9764

VISA
MasterCard

WEST
SINGER SQUARE ONE
MISSISSAUGA
☎ : 277-0341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 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530-1046 10a.m.~5p.m. 368-7258 6p.m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하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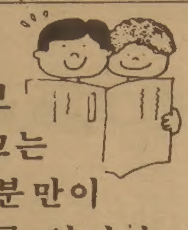
충북 영동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백경희, 탁명순을 찾음.
연락전화 : 533-0489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 있으신분 구함
전화 : 665-8233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Cashier 구함
Downtown(토, 일) 전화: 461-5242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구 직

저희 집에서 애기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Jane & Finch) 전화 : 661-7891

Baby Sitter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전화: 245-8373 (Mrs. 박)

구 혼

결혼상담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BUSINESS 안내

1) 작고 알찬 Variety Store
Pape & O'Connor 네거리에 있음. 작년주매상평균: $4,600
그외 로타리오 머신에서 순수입 월 $800이상.
렌트: $500, 리스: 2년+5년, 아스킹: $40,000

2) 처음 혼자 해보실 분에게,
3410 Kingston Rd. M & P Milk Store로
들려보십시요. 렌트: $300, 새리스: 5년+5년이 가능하고 경쟁자 없음. 봄 여름에 정원용 Business를 별도로 할수 있음. 주매상: $2,500 아스킹: $15,000

Royal Trust Corporation of Canada
1919 Lawrence Ave. E. Tel: 752-3111
곽 석 용

집 팝니다(Bellwood Queen Area)
6베드·룸. 좋은 조건임(Private Sale)
가격 : $66,000.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445-9486

CAN-AM REAL ESTATE LTD.

Wanted 2 licensed Real Estate sales people to service Ontario's Korean community. A working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is important. You will represent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ne of Florida's largest home builders and community developers. Top commission, starting salary and manager status available to successfuly applicants.

For Further information:
call T. Hill at 661-1625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Corporation.

OA1430-80
*Ask for and read carefully the Prospectus relating to this offering.

세탁소 매매(Depot)
가격: $39,000 (Washing & Dryer 포함)
Rent: $1,100(Four Bed Room 포함)
리스: 3년 + 3년, 주매상: $900~$1,200
전망이 좋음. 465 Vaughan Rd. Toronto.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가정 혐편상 Fruit & Grocery Store
급매코져함. (Corner Store)
744 Dundas St. W. (Bathurst & Dundas)

75년도 클라이슬러 (Town & Country Wagon)
Certified $1,000 전화: 270-2709

Building for Sale (All Best Offer)
(각종 어떤 업소에도 적당한 건물임) 아스킹: $105,000
982 Pape Ave. 전화: 422-5029 (Mike)

성업중인 Hamburger Franchise Restaurant 급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내방 바람.
Peterborough, Ont. 전화: 1-705-748-9722 (Mr. Kim)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ALBANY REAL ESTATE LTD.
1) Hotel: Room-45, (8개월간 영업)
Niagara Falls Restaurant (Tavern), Gift Shop
모두 포함. 가격: $700,000
2) Restaurant Tavern: 건물포함, 2 apartments
가격: $295,000, 다운페이: $75,000
3) Burger — Chicken Take out Only;
스카브로 플라자에 있음. 주매상: $4,000
Call Wm Matevich 251-4656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Milk Store 매매.(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음)
주매상: $3,500 보증, 아스킹: $28,000+스탁
위치: 777 Danforth Rd.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전망좋은 지역으로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호텔을 아파트먼트로 개조한 건물 팝니다.
(5 아파트먼트 & 1 Store)
자세한 문의는 전화 : 846-0800 (Hogg)
Royal City Realty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가게 매매"
Discount Variety Store
주매상: $3,000. 현 영업시간은 8시간이나
앞으로 원하는 만큼 길게 할수도 있음.
962 St.Clair Ave. W.
전화 : 654-4410 Vatale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3,500 Rent: $650
리스: 5년 + 5년. 전화: 781-1072

1) 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 인 햄버거 숍
주매상: $8,000 리스: 4년 + 옵션
렌트: $1,700 아스킹: $350,000
2) Variety & Gift Shop (건물포함)
토론토에서 30 mile 거리에 있음.
년매상: $600,000 아스킹: $420,000
3) 사무실 Building안에 있는 미장원
주5일 오픈, 주매상: $1,500 리스: 6년
아스킹: $45,000
4) 그외에 시간짧고 운영간소한
Fast Food & Take Out 비즈네스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영업시간이 짧은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000
전화 : 531-1155 낮 12시 이후 연락바람.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조지)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급매"
세탁소와 Bakery(Plaza안에 있음).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4020 Dundas St. W.

꽃집매매. 조그마한 자본으로 이윤높은 꽃가게.
바쁜 지역으로서 Parking장도 있음.
가격 : $7,900. 전화 : 698-9188 (마이클)

Convenience Store 매매
◉오샤와 지역 ◉렌트: $185 ◉리스: 4년
◉Whitby 지역 전화: 282-7596

대지(Cottage용으로 적합) 매매. Best Offer
Midland Area (Barmbeach) 넓이: 50ft × 120ft.
(Toronto에서 80mile 거리) 전화 : 922-2966

하우스 렌트

방세놓읍니다. (College & Brunswick)
부엌과 목욕탕,출입구 따로 되어있고 혼자서 생활하기에 적합함. (지하실: Mon/$200) 전화: 923-6236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로얄욕) 전화: 255-4745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